

2021년 봄호 vol.162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만나고 싶었습니다/민간 은행 최초 여성 은행장 유명순 동창
모교사용설명서/총동창회 공식 유튜브 채널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4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베풀어야 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4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헤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1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3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1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4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남상택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VVIP 통합 프리미엄 매칭서비스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에스노블

두 대통령家의 성흔을 이루어낸 정성과 열정

집안까지 생각하신다면 에스노블 회원이십니다.

23년 경험의 프리미엄 매칭노하우,

엄정한 심사와 신원인증을 거친 차별화된 회원 네트워크,

노블레스 결혼을 이끌어온 최고 성흔율

VIP성흔의 마지막 절차, 에스노블
특별한 1%의 만남을 확인하세요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상담예약/문의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 패밀리빌딩 2F <http://www.snoble.com/>

of'em

Since 1997, One of Them





표지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교수)
대강당 앞 배꽃
'네 향기 널리 퍼져라'(2020)

편집위원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
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9, 편집위원)
조성아(정의 89,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편집위원)

발행 2021년 4월 10일 발행

발행인 남상택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1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03 2021년도 정기총회

현 총동창회 회장단 유임 발표,
“소통하며 변화를 위한 디딤돌 될 터”

06 2021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신입 동창 25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

08 제18대 총동창회장 인사말

아날로그의 경험과 디지털의 혁신이 공존하는
새시대의 변화 모색

10 2021년도 신입 동창 환영사

백추혜 생활환경대 동창회회장

11 2021년도 신입 동창 답사

양혜지 신입 동창

12 특별기고 / 김활란 선생님 50주기 추모사

행동하는 신앙과 담대한 비전, 열정적 현신으로 이화를 섬기다

14 이화의 기도처 순례 / 대학교회 예배실

세상에 속하되 속하지 않는 생명과 부활의 공간

16 2021년도 사업계획안

17 축하합니다 손경순 동창 외

19 만나고 싶었습니다

민간 은행 최초 여성 은행장으로 선임된 유명순 동창

24 이화인 모임 탐방

해외 진학 이화인 모임 'SAGE'

29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IT 기술과 축산업 결합한 유라이크코리아 대표 김희진 동창

34 이화비즈

유안정형외과 피부비만항노화 클리닉 원장 안지현 동창

38 모교 사용 설명서

총동창회 공식 유튜브 채널

40 선교지에서 온 편지

공동체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다

42 총동창회 소식

2020년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외

44 선교부 소식 『이화의 선교행전』을 책으로 꺼내

46 모교 소식

제16대 김혜숙 총장 이임식 및 제17대 김은미 총장 취임식 외

51 대학(원) 소식 인문과학대학 외

53 과(학)부 소식 사회학과 외

56 지회 소식 멤버를 지회 외

61 동창 균황 육완순 동창 외

67 동창이 펴낸 새 책 『분단시대의 사회학』 외



03



04



14



19



24



29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낫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8)



사랑하는 하나님,

숨을 잃은 듯 하얗게 말라버린 앙상한 가지 끝에 간신히 비집고 돌아난 듯 가녀린 움들이
메마른 땅에서도 물줄을 따라 그 뿌리를 든든히 세우고
탐스러운 봉우리를 피워 만개해 갈 생명의 기운을 바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며 두 손 모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문득, 135년 전 이 땅 고단한 여성들의 뼈아픈 한숨을 들으시고
스크랜튼 선생님에게 선한 소원을 주셔서 '이화'의 쪽문을 열게 하심으로
'이화'가 '이화' 되도록 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화'를 통해 이 땅 지극히 작은 자들의 묶인 매임을 풀어 주시고
멍에를 같이 하시며 굽어진 허리를 펴 주시고 무너진 무릎을 곤추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기대합니다….

내일도, '이화'를 통해 이 땅 소외된 이들의 배웃을 벗겨 눈물을 닦아 주시고
슬픔을 기쁨 되게 하시며 어둠 속 절망을 빛 된 소망으로 새로이 빛어 가실
하나님의 궁홀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럼에도, '이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신 손길과 궁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인해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불들린 바 되어
때로 바위틈 낭떠러지에 있는 듯 불안하고 때로 모래사막을 헤매는 듯 방황하며
때로 거친 광야에 흩어 머무는 듯 두려움에 서성이오니
'이화'를 이끄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이심을 일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이화'가 통로 되어 온 땅 곳곳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사랑의 나눔 이어가고 있음을 뜻 생각과 뜻과 마음을 열어 확연히 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중한 '이화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이후 더욱 정합으로 진실하며 흠이 없이 순결하여
각 부르심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그 분깃의 소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 꿈을 꾸면서 성령께서 펼치시는 날갯짓 따라
하나님의 즐거움과 자랑으로 자리매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동창들이 서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선취한 은총에 감사하면서
삼겹줄의 간구로 씨줄날줄 엮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옵소서.
'이화'를 늘 지키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사랑과 자비와 궁홀로 거하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현 총동창회 회장단 유임 발표 “소통하며 변화를 위한 디딤돌 될 터”



총동창회는 3월 13일(토) 오전 11시 30분, 2021년도 정기총회를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46명의 이화 동창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총동창회에서는 이경숙(영문 70)·김영주(교육 71) 고문, 김미령(커미부 69) 회장단 추대위원장,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및 임원들, 모교에서는 김은미(사회 81) 신임 모교 총장, 이해선(생미 92) 대외협력처 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줌 화상 회의(참석 206명)와 현장 회의(참석 40명)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미경(물리 88)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정기총

회는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과 개회사, 전 회의록 낭독, 2020회계연도 감사·사업 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 개선, 모교 소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결산안 및 사업계획안, 예산안 등 통과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팬데믹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린다”며 “이 자리에는 국내 지회, 북미 주지회연합회를 비롯한 해외 지회에서 줌 화상회의로 참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동창회의 많은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총동창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되었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맞춰 동창 네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은미 모교 총장

트워크를 강화하고, 모든 세대 동창들의 소통을 위해 선배들의 연륜이 담긴 지혜와 후배들의 젊은 열정의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동창회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은미 총장의 취임사에서 언급한 ‘구성원 상호 존중 문화 방안’에 대해 의미를 두며, “24만 동창들이 모교 구성원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학교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서기 김인정(김공 87) 동창이 낭독하고 약대 동창회장 김용재(약학 82) 동창의 동의와 음대 동창회장 최은희(종음 81) 동창의 재청을 받아 통과되었다. 2020회계연도 감사 보고에서 임진(작곡 72) 감사는 “총동창회 회칙 제9조 3항에 의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의 제 증빙서류를 감사한 결과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비대면 행사 성공적으로 치러

한미경 총무가 2020회계연도 사업보고를 한 데 이어, 임선희(경영 88) 회계가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했다. 한미경 총무는 “코로나19로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총동창회는 비대면으로 열심히 여러 행사를 마쳤다”고 말하고, 다만 ‘이화 가족 어

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일부 행사는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보고했다. 임선희 회계는 평생회비 수입이 작년에 비해 30퍼센트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대해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많은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하며 이화 동창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사업수입 증가에 대해서 작년에 비자회를 비롯해 대부분 비대면으로 행사를 치렀음에도 상당한 실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현장 참석자들은 유인물로, 줌 화상회의 참석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전송된 문서파일로 보고서를 확인하였고, 해외 및 국내 지회 동창들이 채팅방에 올린 동의와 생활환경대 동창회장 백추혜(식영 72) 동창 등의 재청으로 가결하였다.

이어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을 한미경 총무가 발표하고, 임선희 회계가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각 항목마다 온라인 참석 동창들의 동의와 경영대 동창회장 윤은주(경영 89) 동창 등의 재청 속에 가결되었다.

뒤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2020년 8월 정기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총동창회 사단법인 설립’ 안건에 대해 회칙 17조에 의거하여 총회에 추인 요청을 하였다. 그동안 후원금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제17대 모교 총장으로 선임된 김은미 총장을 환영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지키며 최소한의 인원만 대면으로 참석했다

어려움이 많아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하며,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자산 3억 원을 법인으로 이전하지만 동창회의 총 자산에는 변동이 없음을 밝혔고, 참석자 다수의 동의와 재청을 통해 안건이 가결되었다.

총동창회 임원 개선 발표

이날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임원 개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미령 회장단추대위원장은 총동창회 회칙 7조에 명시된 절차를 거쳐서 회장단추대위원 7인으로 본인을 포함하여 이경숙·김영주 고문과 임진 감사, 인문대 동창회장 이정화(독문 74)·전 약대 동창회장 정용희(약학 75)·전 정보통신부장 황정인(컴공 90) 동창이 선

임되었음을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진지하고 신중한 회의를 한 끝에 어려운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서 총동창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남상택 총동창회장, 이명경·조미숙 부회장, 임진·신경희(수교 77) 감사 등 현 회장단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고, 동의와 재청 속에 현 회장단의 연임을 확정하였다.

연임된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2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보다 더 어깨가 무겁다”고 심정을 말한 뒤 “초심을 잊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총동창회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다면 소통하며 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참석한 동창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원하였다.

김은미 신임 총장 박수 속에 맞아

이어 김은미 신임 총장이 모교 소식을 전하려 단상에 오르자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꽃다발을 건네며 총장 취임을 축하하였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총동창회에서 가장 먼저 총장 취임 축하연을 열어 왔던 전통이 코로나19로 무산됨을 아쉬워하며, 모교 발전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담아 더욱 큰 박수



비대면 참석자들의 의견을 실시간 확인하는 모습



줌 화상을 통해 전국, 세계 곳곳에서 정기총회에 참여한 이화 동창들

로 환영하였다.

김은미 총장은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지만 동창의 소중함을 재발견한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다”면서 동창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코로나19 극복 긴급 모금을 수월하게 마무리하고 학생들이 생활비 장학금을 받게 된 데에 감사를 표했다.

김 총장은 “후배들이 학교로 많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고 있다”면서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화는 끈끈하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1월 노후한 학관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모교 소식을 알리며 “건축기금모금을 위한 캠페인에 애정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은미 총장은 “올해 창립 135주년을 맞이한 이화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취임사에서 밝혔던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이화의 소명대로, 선배들이 이룩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사회 위기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대

학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존중받는 구성원, 행복한 이화’를 이루기 위해 모교는 21세기 평생교육의 시대에 다양한 학위·비학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창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동창 각자의 역량이 이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전으로 제시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명문 이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창들이 함께 동참해 주길 당부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총장 취임과 총동창회장 연임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온라인 채팅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운데, 다함께 교가를 부른 뒤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2021년 정기총회를 마무리했다. 동창들은 대외협력처에서 준비한 떡 선물세트와 이화여대총동창회 선교부(1988~2020)에서 출간한 기념 자료집 『이화의 선교행전』을 선물로 받아들고 동창회관을 나섰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2021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신입 동창 25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

3월 13일(토) 오전 11시, 2021년도 졸업생 약 3,628명이 총동창회에 신입 동창으로 입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신입 동창 환영회가 동창회관 대회 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열렸다.

홍은아(체육 03) 회우부장의 사회로 열린 환영식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며 시작했다.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은 “이화에 심은 많은

기도가, 후배들이 들어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힘든 한 해였지만 지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 임기를 시작하는 김은미 총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어 백추혜(식영 72) 생활환경대 동창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백 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동창들이 신입 동창 환영회에 참석해 축하해 주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히며 “기독교 정신의 이화, 그 가치를 지켜온 선배들의 노력과 발자취를 따라 이 시대에 필요한 역동적인 이화 동창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양혜지(경영 21) 신입 동창은 답사를 통해 “이화는 닮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공간이었다”고 회상하며, ‘Where Change Begins’라는 슬로건에 맞게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이화인을 보며 뒤처지지 않고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에 입회한 신입 동창들을 축하하며 꽃다발과 총동창회 기념품 ‘이화마크 석고방향제’를 전달하였고, 참석자들은 환영의 박수로 후배 동창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다음은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이 이어졌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장지효(유교 21) 동창 등 대학원에 진학하는 신입 동창 25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총동창회는 매년 대학원에 진학하는 25명의 신입 동창과 재학생 25명에게 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축하 연주로 송옥주(대학원 관현악 12)·구자은(대학원 관현악 12) 동창이 바이올린과 첼로 이중주로 Carlos Gardel의 작곡한 〈Por una Cabeza(여인의 향기 OST)〉(피아노 반주 이승희(피아노 87),

음악부장)를 들려주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 신입 동창 환영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환영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대면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참석하지 못한 동창들은 줌(Zoom) 화상을 통해 실시간 중계로 행사를 지켜보았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양혜지 신입 동창에게 기념품을 주고 격려했다



신입 동창 25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하는 모습



축하연주로 신입 동창 입회를 환영했다

아날로그의 경험과 디지털의 혁신이 공존하는 새시대의 변화 모색

남상택(풀리 74, 제18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이화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동창회는 매년 3월 둘째주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날은 봄꽃이 꽂망울을 터뜨리는 모교 캠퍼스에서 동창 여러분과 반갑게 만나 인사하고 총동창회의 여러 가지 현안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곤 했는데, 오늘은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만나 뵙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면 행사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합니다. 그 대신 각 과를 대표하는 동창과 국내 지회장, 그리고 북미주지회연합회를 비롯한 해외 지회장 등 총동창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동창 리더들을 줌(Zoom) 화상 회의를 통해 참여를 권유하였습니다. 대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이화 동창 여러분들이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정기총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우리의 마음과 일상을 크게 위축시키긴 했지만, 줌 화상회의를 통해 멀리 있어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난 듯이 볼 수 있으니 이 또한 기쁜 마음과 반가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임에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주신 모교 김은미 신임 총장님과 이혜선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한 모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큰 역할로 동창회를 이끌어 주시는 이경숙 고문님과 김영주 고문님 그리고 김미령 회장단추대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 때마다 진행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임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

지난 1년 동안 총동창회는 많은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총동창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영상으로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재난을 예측하지 못한 탓에 아무런 경험 없이 행사를 진행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 동창회장님과 각 부장님들이 뛰어난 역량과 아낌없는 봉

“선배의 연륜과 후배의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통하며 발전하는 총동창회가 되겠습니다”

사로 행사를 빛내 주셨고, 그 덕에 오늘까지 많은 일정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총동창회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저는 소중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경험과 함께 총동창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첫째, 24만 이화 동창에 대한 네트워크 강화 등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신속한 대응을 해야겠다고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동창회만의 아날로그 경험과 디지털의 혁신이 공존하는 디지로그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세대 동창들의 소통을 위해, 선배들의 연륜에 담긴 지혜와 후배들의 젊은 열정의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모교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총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김은미 총장님의 취임사를 의미 깊게 들었습니다. 김은미 총장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명문 이화를 만드는데 주력하기 위해 강조하신 몇 가지 중점사항 가운데 ‘구성원 상호존중 문화’ 방안은 우리 총동창회와도 매우 관계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24만 이화 동창들이 모교 구성원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학교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총동창회는 모교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정기총회임에도 함께하셔서 섬김과 나눔, 봉사와 혜택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각 동창회 대표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이화 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백추혜(식영 72, 생활환경대 동창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동창이 되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아름다운 이화 교정에서 지난 4년간 학문과 인성, 지성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이화 동창을 대표하여 환영하고 축하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동창들이 모여 환영하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환영하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화는 130년 전 스크랜튼 선교사의 헌신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도약을 거듭하며 세계 최대 여자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화는 전통과 역사를 가졌고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명문 이화를 열어 가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이화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과 선구자적 선배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화의 가치를 지켜온 선배 동창들의 노력과 발자취를 따라 새 시대에 필요한 역동적인 이화 동창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에서 이화의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이어받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미래를 개척하고 창의적인 여성으로 각 분야와 각자의 위치에서 선두주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이화인은 세계 만방에 더욱 사랑과 헌신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이화의 기독교 정신과 전통, 명예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화의 향기가 넘치고 긍지가 있는 이화 동창으로, 진선미의 이화 동창으로 함께 나아 가도록 합시다.

신입 동창 여러분이 동창으로서 한 가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 새로움을 만들어 나갈 것

양혜지(경영 21)



먼저 이화를 벗어나 사회로의 첫발을 뗀 졸업생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임에도 더이상 대강당을 향해 뛰어갈 일도,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일도 없다는 데서 졸업을 실감합니다.

학부를 다니면서 느낀 이화는 닳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공간이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만난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은 'Where Change Begins'라는 학교 슬로건에 맞게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을 볼 때마다 저 또한 뒤처지지 않고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노력했습니다. 이화에서 공부하는 동안 '졸업'을 간절히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땐 졸업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에게 졸업은 단순한 학위 수여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이화인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저는 이제 이화를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와 함께 졸업하는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 또한 각자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이화라는 출발점을 떠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 끝이 어떨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저희 이전의 선배들이 그랬듯 저희는 때로는 새로운 길로, 때로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이화 교정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과 정신을 머리와 가슴에 담고 사회로 나아가는 저희 졸업생에게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 주십시오. 저희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 선배님들과 함께 새로움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뒤따라가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앞서가는 등불로,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하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화에게 끊임없이 물으니, 함께 이화 공동체로서 막힘없는 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해 주시고 저희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신앙과 담대한 비전, 열정적 헌신으로 이화를 섬기다

오늘 김활란 선생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뜻깊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추모식은 받으시는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모하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화의 작품이고, 이화의 오늘이 있게 한 것은 선생님의 헌신이 절대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은 1939년에 이화학당 교장이 됩니다. 아펜젤러 교장은 김활란 선생님에게 교장직을 물려주면서 “‘한국에 있는 여성 교육 기관’이니까 마땅히 한국 여성이 지도자가 되어야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삶의 용기와 헌신의 동력을 신앙이었습니다. 15세 무렵 텅 빈 기도실에서 철야기도를 위해 혼자 끓어앉아 계신 선생님에게 갑자기 울부짖고 호소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 저 소리가 들리느냐? 저것은 한국 여성들의 아우성 소리이다. 저들을 견쳐라. 그것이 너의 일이다.” 이 소리를 듣고 받은 선생님은 이 땅의 여성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선생님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고 담대한 비전의 지도자였습니다. 이화를 향한 선생님의 비전은 놀랍도록 크고 높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자, 모두가 기쁨과 흥분에 휩싸였던 그 순간 선생님은 이화전문학교에서 이화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킬 비전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1945년 10월 1일, 군정

문교부에 제일 먼저 이화전문학교의 종합대학 승격을 신청하고, ‘이화여자대학교’라는 새 간판을 정문에 겁니다. 이화는 이 땅에 최초의 종합대학이 됩니다. 군정 문교 당국은 여자대학에 어떻게 먼저 종합대학 인가를 내어줄 수 있는가 하는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담대한 비전으로 앞서가는 이화의 결음은 선생님의 크신 비전과 순발력 있는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58학번입니다. 이화에 입학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뚝 선 대강당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 가난하던 시절 어떻게 저 거대한 대강당을 지으셨을까? 선생님은 4,000명의 학생이 함께 예배하는 공간을 위해서, 그리고 1956년 창립 70주년 축하를 위해서, 대강당 건축을 단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극구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으나, 선생님은 사람의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짓는다고 하시면서 건축을 추진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강당은 우뚝 서서 예배의 장소로 이화의 위용을 지킵니다.

선생님은 이화에 봉직하신 지 40년이 되는 1958년에 후배에게 학교를 물려주고 전도 사업에 전념하시리라는 생각이셨습니다. 마침내 1960년 4월 19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공관 뜰에서 30여 명의 신앙 동지가 다락방 전도협회를 창립합니다. 다락방 전도협회는 자비량 선교 운동이며 주로 평신도 선교 운동 센터입니다. 선생님은 친히 농촌 전도에 나가셨고, 때로는 넝마주이들을 다락방에 불러

전도 집회를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특히 대학생 전도 모임을 기뻐하시고 권장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없으나 선생님의 섬김의 대상은 여성과 조국이었습니다. 여성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이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많은 요청이 있었으나 선생님은 정치에 직접 몸담지 않으셨습니다. 여성 교육을 통해 나라의 발전을 도우시겠다고 사양하셨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추모사를 위해서 선생님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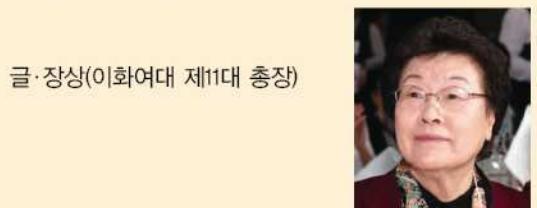
제가 유학을 가기 전, 다락방 전도협회의 총무로서 2년여 선생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어느 새벽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장상이 일어났으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오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너는 그 시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내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이화를 위해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심혈을 기울인 일은 이화국제재단 설립의 과정였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1969년 선생님은 마지막 미국 여행길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그때 New Haven에 있는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969년 여름철이 조금 지났을 때, 선생님이 New Haven에 오실 터이니 그곳 동창 지인들을 불러 모으라고 주소를 보내주셨습니다. 20~30명이 Yale Campus 잔디에 앉아서 이화의 발전을 위한 꿈과 비전을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창들을 중심으로 이화국제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

다. 끝날 무렵 선생님은 제게, 이분들에게 기억될 만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종이 한장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잔디에 엎드려서 뭔가 쓰고 제게 주면서 복사를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가람 봄바람에 피어난 우리’로 시작되는 교가 1,2,3절이었습니다. 그곳에 오신 분들은 선생님이 친히 쓴 교가를 받고 무척 기뻐했고, 선생님의 선창으로 교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해 말에 귀국하셔서 1970년 2월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추모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은 이화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정신이라고 확신되었습니다. 신발 5호를 신는 자그마한 체구에 담긴 그 담대한 신앙, 그 담대한 비전, 그 담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이화라는 창조적 현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보면 신앙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화는 그 가능성 위에 있습니다.

이 자리 이 순간이 선생님의 행동하는 신앙과 담대한 비전, 열정적인 헌신이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추모하는 마음에 담습니다.



글·장상(이화여대 제11대 총장)

*이 글은 이화의 졸업생이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화여전 제7대 교장에 취임하였고, 종합대학교 설립 이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재직한 김활란(1899~1970) 선생님의 50주기를 맞아, 김활란 선생님을 기리며 쓴 글입니다. 장상 전 총장은 모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및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모교 11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세상에 속하되 속하지 않는 생명과 부활의 공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이하 대학교회)는 정문으로 들어와 왼쪽에 자리한 박물관 뒤쪽에 있다. 1935년 9월 29일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회인 이곳은, 첫 예배를 드린 중강당(에머슨홀) 시대에 이어 대강당 시대를 거쳐 2000년 5월 새 성전을 신축하며 비로소 독립 공간을 갖게 되었다. 영안모자 그룹의 백성학(윤순희 전 총동창회장 부군) 회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다 신의주 감옥에서 순교한 어머니 김숙녀 여사를 기리며 기부한 기부금과 대학교회 교우들이 오랫동안 모은 현금, 모교의 부지 제공으로 완공된 대학교회는 대강당과 함께 이화를 상징하는 공간 중 하나이다.

지하 1층~지상 4층의 건물 공사를 시작하면서 대학교회측은 ‘세상에 속해 있되 속하지 않는’ 이미지로 성전을 재현하기로 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세상에 속해 있음을 뜻하는 저층부 기단과 속세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상에 떠 있는 상부 구조의 독특한 외양이다. 일반 교회와 달리 첨탑이나 십자가가 밖으로 보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얹은 철골 구조물이, 예수의 고행을 의미하는 가시 면류관의 의미를 대신하고 있다.

대학교회 건물 안에는 900석 규모의 대예배실과 20~30석 규모의 소예배실, 신학대학원 강의실 및

신학 도서관 등이 있다. 1층 소예배실 입구에는 대학교회를 현당한 백성학 회장의 어머니 김숙녀 여사를 기리는 기념판과 액자가 조촐하게 자리 잡고 있다. 작지만 아득한 이 공간에서 어머니의 마음처럼 넓고 크나큰 하나님의 복음과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듈다. 손때 묻은 성경책을 조심스레 들춰본다. 그동안 이 공간이 하나님을 찾고 그 부르심을 기뻐하는 이들을 얼마나 넓은 품으로 안아 주었을까 짐작해 본다.

한층 더 오르면 900석 규모의 대예배실이 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매주 한번 일요일 오전 11시에 한국 사회의 지식인, 모교 동창과 가족들, 지역 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약 70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평일에도 이곳에는 교직원이나 재학생들이 수시로 들러 조용히 묵상하곤 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문을 닫은 지금,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한 줄기 빛이, 일과 학업에 지친 이들을 따스이 감싸 안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안타깝다.

하루빨리 팬데믹이 종식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공간이 더욱 성스러운 곳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순교한 김숙녀 여사를 기리는 액자

글·사진 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흥보부장)



대학교회 전경



소예배실



대예배실

2021년도 사업계획안

2021. 3. 1 ~ 2022. 2. 28



1.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3월 13일)
2.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4월 22일)
3. 제9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예정)
4. 이화 창립 135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5월 11일)
5. 이화 창립 135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5월 31일)
 - 총장 초청 오찬
 - 기념식 –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
- 졸업 50주년(1971년 졸업)·30주년(1991년 졸업) 동창 재상봉 행사
 - ‘올해의 이화인’ 추대
6. 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9월 예정)
7.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예정)
8. 제20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11월 예정, 미국 디트로이트)
9. 이화인의 밤 개최(11월 29일)
10. 제14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11월 29일)
11. 이화가족 성탄예배(12월 2일)
12. 이화 창립 135주년 기념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예정)
13. 정기임원회(매달 둘째주 목요일)
14. 동창회보 162호~165호 발간(3, 6, 9, 12월)
15. 국내 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 순방
16. 연회비, 평생회비 납부회원 배가 운동(연중)
17. 후원이사 증원(연중)
18. 모교발전기금 모금(연중)
19. 지원 사업(연중) 1)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행사 찬조
 - 2) 학생군사교육단 입단식 후원
20.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연중)
21. 황화방 리모델링 후 운영(연중)
22. 기타(이율 행사 외)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손경순(무용 77) 동창 **옥조근정문화훈장 수훈**

손경순 동창이 옥조근정문화훈장을 받았다. 손 동창은 한영숙(韓英淑) 선생으로부터 승무, 살풀이, 태평무 등을 사사했고, 이홍구(李興九) 선생으로부터 학연화대합설무 등 궁중 무용을 사사했다. 손 동창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전수조교이다. 승의여대 교수를 역임했다.



박명순(약학 78) 동창 **경인여대 총장 취임**

박명순 동창이 2월 16일(화) 경인여자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박 동창은 경인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로 임용된 후 교무처장, 기획실장, 대외부총장,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서지희(경영 85) 동창 **'WIN' 제3대 회장에 선임**

삼정KPMG 전무 서지희 동창이 2월 24일(수) 열린 (사)위민인이노베이션(WIN) 정기 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임되었다. 'WIN'은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국내외 여성 임원 네트워크로, 여성 지위 향상과 여성 리더의 역할 확대를 위해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지희 동창은 대형 회계법인의 첫 여성 임원으로서 현업에서 30년 이상 활동하며 회계법인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윤석희(법학 87) 동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지명**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윤석희 동창이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됐다. 윤석희 동창은 27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여성,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해 힘써 왔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의 전문 변호사로 위촉돼 활동 중이며, 한국여성변호사회 산하 아동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코피노' 아동을 대리해 양육비 청구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우라옥(법학 89) 동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부임**

우라옥 동창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에 임명되었다. 우라옥 동창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특허법원 판사, 울산지원·의정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민사제2주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임현정(경영 91) 동창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CFO**에 선임

임현정 동창이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선임되었다. 임현정 동창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프赖스워터하우스쿠퍼스를 시작으로 국내 회계컨설팅 법인 삼정KPMG와 한국화이자제약의 세금 재무 담당 관리자를 역임했다.



홍은아(체육 03) 동창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선임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홍은아 동창이 1월 27일(수)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한축구협회(KFA)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여성이 선임된 것은 처음이다. 홍 동창은 2003년 한국인 최연소 국제심판이 됐고, 2020년엔 한국인 최초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개막전 심판으로 이름을 올렸다.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 명단

▶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2020년 12월 29일(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다수의 이화 재학생 및 동창이 합격했다. 교육행정직 수석합격의 영예를 차지한 조예림(사회과교육 14학번) 재학생을 포함해 이화인 13명이 합격했으며 이화 동창은 9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서아(커미부 10), 최민지(영문 16), 정혜원(수학 18), 이가영(통계 20), 강주희(철학 21), 김근령(국문 21), 봉지은(교육 21), 신새리(행정 21), 최나슬(사학 21).

▶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합격자

2020년 11월 29일(일) 발표한 '2020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황선빈(정외 17) 동창이 최종 합격했다.

▶ 변리사시험 합격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월 20일(수) 공개한 제57회 변리사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이화인 10명이 최종 합격하였으며, 이화 동창은 6명이다. 최한나(과교 17), 김가영(과교 18), 지경은(과교 18), 김지윤(통계 19), 문영주(수학 20), 오현진(수교 21).

▶ 약사국가시험 합격자

2월 17일(수) 발표된 '제72회 약사국가시험'에서 양현주(약학 21) 동창이 수석 합격의 영광을 차지했다. 또한 모교는 재학생 응시자 127명 중 122명이 합격하여 96.06%의 합격률을 보여 전국 평균을 5%p 이상 상회하는 우수한 결과를 냈다.

▶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

3월 3일(수) 발표된 제57회 세무사자격시험에서 이은별(동양 14) 동창이 수석합격하였다.



황선빈 동창



양현주 동창



이은별 동창

만나고 싶었습니다 /
민간 은행 최초 여성 은행장으로 선임된
유명순 동창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을 브랜드화하라



**“고객과 은행 그리고
나를 위한 탁월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한다”**

국내 민간 은행 최초의 여성 은행장이 2020년 10월에 선임되었다.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유명순 (영교 87) 동창이 그 주인공이다. 2014년 기업은행에서 여성이 은행장으로 선임된 적은 있으나 기업은행은 정부가 만든 특수 은행으로, 민간 은행 여성 은행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동창은 한국씨티은행에서 30여 년 동안 기업심사부 애널리스트, 다국적기업부 심사역, 기업금융상품본부 부행장, 기업금융그룹 수석부행장 등으로 일해온 기업금융 전문가다. 유 동창을 만난 때는 2021년 3월. 민간 은행 첫 여성 은행장이라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주인공임에도 은행 내부적인 일에 집중하고자 한 유 동창이 인터뷰에 응한 곳은 《이화동창》이 처음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ESG에 적극 투자할 것

“민간 은행장으로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권선주 기업은행장처럼 홀륭한 롤모델이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배님들이 닦아 놓은 업적에 누가 되지 않게 하고, 동료와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여성 은행장이 처음이지만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은행 영업 환경과 고객들의 행동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씨티은행을 키워갈 생각입니다.”

한국씨티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 유 동창이 선정한 캐치프레이즈는 ‘Reset for Excellence(탁월함을 위한 재설정)’다. 고객과 은행 그리고 나를 위한 탁월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행동하자는 것이다. 또한 고객에 대한 책임, 동료들에 대한 책임, 프랜차이즈 씨티를 대표하는 책임 등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비대면 디지털 채널을 더 강화하여 3월 말에 고객들이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오딧세이 프로젝트’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씨티모바일앱’을 재론칭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씨티은행 ESG 커뮤니티’를 만들어 한국 최우수 ESG 은행을 꿈꿔보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간 Wealth Management에서도 ESG 꼭지 투자 상품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었고 기업금융 쪽 역시 ESG 프로젝트에 저희가 금융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ESG에 대한 관심이 기업고객들로부터 많이 생기고 저희도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각 부문별로 분산되어 있던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보다 집중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고객들과 시장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 화두로 부각된 단어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가치(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즉 환경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을 투자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사내 조직, 프로젝트명에 ESG를 붙이고 있으며 윤리 경영, 사회가치 경영, 인권, 안전 등 기존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ESG로 흡수되고 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맞물려 ESG의 중요성은 과거에도 언급되었지만 기업의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했다고 한다. 현재 세계 금융 기관들은 ESG 평가정보를 투자 주요 항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은행 본연의 사업뿐만 아니라 씨티은행은 씨티재단을 통해 ‘단순한 자선 이상의 기여를 통해 지

속 가능한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목표로 적극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씨티재단의 사회공헌 사업 추진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의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진로지원(Pathways to Progress). 둘째, 금융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셋째, 인구 및 경제가 도시로 집중되는 도시화 현상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ies)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이화-씨티 글로벌 금융아카데미’입니다.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고 씨티은행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한 학기 마무리 시점에 저도 모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20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화-씨티 글로벌 금융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에게 금융이론과 실무 관련 지식을 전하고, 향후 경력 개발을 지원한다. 강의 내용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모교에서는 2006년부터 이 과정에 정식으로 3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강사진은 여성 임직원과 외국인 임원, 씨티은행에 재직중인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프라이빗 뱅킹과 기업금융, 투자금융, 리스크 관리 등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심도 깊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많이 듣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라

유 동창은 행원으로 입사하여 은행장에 이르기까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력을 쌓아 왔다. 영어 교육학을 공부하던 유 동창이 씨티은행에 입사하게 된 것은 대학 4학년 때 모교 취업보도실의 진로 관련 멘토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저는 영어교육 전공자로서 교육과 후진 양성에

관심과 열정이 많습니다. 교육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든 전략이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당시에는 앞으로 교육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교생실습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교육은 100년 대계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학부 졸업하자마자 바로 교육계에 종사할 게 아니라 다른 전문 경력을 쌓고 나서 교육에 몸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당시 학교에서 유명했던 취업보도실 표경희 선생님의 멘토링을 받으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당시는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때였어요.

표 선생님께서 글로벌 비즈니스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양 측면이 있는데, 종합상사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아웃바운드 형태로 취업하여 해외로 나가는 길이 있고, 외국투자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익힐 수 있는 인바운드 형태가 있다고 정리해 주셨지요. 그때가 1987년이었는데 당시 한국이 수출 지향적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먼저 10년 정도 인바운드인 글로벌 회사의 한국 법인에서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아웃바운드에서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씨티은행을 택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선택은 유 동창이 탁월한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가능했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남들과 다른 오늘을 만들어 낸 바탕이었다.

유 동창은 8세부터 12세까지 미국 미시건주에서 생활했다. 공무원인 아버지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미국에서 살게 되



‘내일을 위한 변화’ 후원 협약식에서 유 동창(왼쪽)

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아주 특별하던 1970년대였다. 한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던 경험은 유 동창에게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었다. 모국어처럼 편하게 영어를 쓸 수 있게 된 것도 가장 언어발달이 왕성하던 시기에 두 가지 언어를 사용했던 환경 덕분이었다.

“이화에서의 대학 4년은 아쉬움이 없을 만큼 재미있게 지낸 시간이었어요. 1학년 때는 자유로움을 누렸고, 2~3학년 때는 미국문화원의 IFM (International Fellow Membership)에서 서클 활동을 통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4학년 때는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교생실습도 나가며 대학 생활을 마무리했지요. 서클 활동도, 공부도 열정적으로 하며 즐겼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씨티은행에 입사한 유 동창은 사내 교육 지원에 힘입어 서강대 MBA과정을 다니며 금융과 경제, 사회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을 쌓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했다. 씨티은행은 직장 이자 유 동창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한 배움터이기도 했다. 씨티은행에 근무하며 유 동창은 금융업계에서 성장하는 데 힘이 되어준 특별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모교 선배이기도 한 이성남(영문 70) 전 국회의원이 씨티은행 재무팀에 계셨었어요. 요즘도 연락을 드리면서 많은 정신적인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직장생활뿐 아니라 업무태도가 칼 같았던 이 선배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요. 육아와 일을 병행함에 있어서 커리어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선배님은 버티라고 응원해 주셨지요. ‘아이들은 365일 24시간 돌보는 것 보다는 퀄리티 타임이 중요하다’라는 조언이 기억나네요. 다음으로 박진희·하영구 선배 행장님은 저의 커리어 후반대에서 리더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을 보면 발자취를 따라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대학 1학년때부터 만났던 동갑내기 남편(현재 서울대병원 교수)의 수입이 결혼 초반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회 활동을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웃음).”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동창은 덧붙여 씨티은행의 배려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씨티은행은 제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어요. 이곳에는 소매금융부터 기업금융까지 여러 부서들이 있고 영업뿐만 아니라 지원부서 등 다양한 업무 영역들이 있지요. 제가 아이들을 출산할 때는 Middle Office에서 근무하다가 Front Office(영업)로 간 것은 둘째 아이가 보행기 타던 때인 1998년이었지요. 그동안은 제가 Middle Office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영업 상품을 제안하는 것이 익숙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적을 보여야 했기에 제 앞길이 걱정되더라고요. 신입 사원도 아닌 10년을 일한 중견 직원으로 저에 대한 기대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갈등과 고민

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때였지요. 그때 저의 외국인 보스가 저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말을 많이 하면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Relationship Manager Banker다. 귀가 커야 한다.’ 고객의 Pain Point와 Needs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간절한 부분을 듣고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라며 구체적인 금융 상품을 세일즈하는 기술은 약할지 몰라도 성과에는 약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많이 듣고 질문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조언을 받아들여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객의 소리를 잘 듣고 그에 맞게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훌륭한 성과를 내게 되었고, 고객들에게도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씨티은행을 찾은 것이 아니라 유명순을 찾게 하겠다는 각오로 한 명 한 명의 고객에게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신뢰를 획득한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인의식과 책임감

일하며 가장 중시하는 원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유동창은 모든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는 주인의식이라 답한다. 적극적인 자기주도성과 책임감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차근차근 답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재를 영입할 때 눈에서 레이저와 같이 빛이 나는 사람을 원한다고 유동창은 말한다. 은행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잘 맞춰서 성과를 내야 하므로 팀플레이어로서의 확장성과 유연성도 요구된다고도 덧붙였다.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인의식입니다. 은행 상품은 크게 차별화하기

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고객에게 해결책을 드리고 사후 변화를 업데이트 해드리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저는 대표가 되기 훨씬 전에도 제가 씨티의 일부가 아니라 씨티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늘 일했어요. 저는 고용된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씨티은행을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려고 했죠. ‘고객이 믿고 찾는 유명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유 동창은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온라인이나 오디오북 등을 활용하여 공부하며 자신을 관리하고 ‘깨어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금융 시장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하고 시장 내에서 기업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했지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스스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기도 하고요. 요즘은 좋은 온라인 코스와 교육용 앱 그리고 오디오북도 많이 활용해요. 유튜브에서 하버드나 스탠포드 등 석학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Coursera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지식의 보고예요. 여러 방면의 강의들이 있지만 특히 AI 와 같은 주제를 흥미롭게 찾아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오디오북을 통해 오프라 윈프리의 『The Path Made Clear(언제나 길은 있다)』와 폴 칼라니티의 『When Breath Becomes Air(숨결이 바람이 될 때)』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폴 칼라니티의 책은 유망한 의사가 말기 암 판정을 받으면서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으로, 새로운 시각의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금융, AI, 자기 계발 관련 외에 폴 칼라니티의 책까지 많은 분야에 열려 있는 유 동창의 금융전

문가 이후의 삶이 궁금해졌다.

“기회가 닿는다면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손주들이 생기면 손주들 교육도 포함해서요. 아이들이 자랄 때 세세히 함께하지 못했어서 손주들은 정말 제가 길러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의 딸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소망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동안 서로 바빠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남편과 더불어 자연과 가까이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 동창은 금융 전문가로서 이화의 선후배들에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방안을 전한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으며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30년 동안의 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1년의 변화 정도가 같을 수도 있을 만큼 큰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왔을 때 준비된 모습으로 맞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확장시키고 계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어제의 나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새로운 분야를 배운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Anything Can Happen.’ 이런 유연한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도 준비 동작 없이 갑자기 심하게 움직이게 되면 부러지거나 탈이 나듯이 정신적으로 유연성을 지녀야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적응력도 생기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허윤선(정외 89)

알찬 정보교류와 끈끈한 네트워크로 급성장 중인 '현명한(Sage)' 해외 진학 모임

해외 진학 이화인 모임 'SAGE(Studying Abroad Graduates of Ewha)'는 개설된 지는 햇수로 3년밖에 안 되지만, 신생 모임답게 활기찬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 있다. 'SAGE'는 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임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4명의 운영진을 만나 들어봤다. 이번 인터뷰는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지침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참석한 4명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다.

- 이수민(이;수학 17) SAGE 운영진 2기. 현재 IT계열 스타트업 재직 중
- 송수연(송;식영 14학번) SAGE 운영진 3기. 대학원 (해외/국내) 진학 준비 중
- 강수진(강;경제 16) SAGE 운영진 3기. 현재 외국계 회사에서 BM으로 재직 중
- 전지연(전;국제 18) SAGE 운영진 2기. University of Texas Austin 정치학 박사 과정 입학 예정

SAGE는 2019년 자발적으로 모임이 만들어진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모임을 만들 때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 ① 2019년 유학으로 출국하는 20여 명의 동창들이 정보 교류를 위해 자발적으로 소규모 모임을 개설했어요. 모임에서 모교 내 유학생 전체 네



온라인으로 진행된 SAGE 제2회 석박사 해외 유학 설명회(2020년)

트워크의 필요성에 다들 공감했고, 특히 유학 준비생의 입장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그해 4월 18일 SAGE가 개설되었어요.

송 __ 다른 학교에는 유학 준비 모임이나 동아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모교에서는 유학 준비생들이 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정말 어렵고, 그런 커뮤니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되어 모임이 시작되었죠.

이화인이 아니면, SAGE 카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SAGE의 가입 방법과 절차, 그리고 SAGE의 규모와 운영방식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__ SAGE는 카페를 비공개로 설정하고, 이화인 인증 절차를 통해 SAGE 카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록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드미션 리포트나 합격 수기, 장학금 정보 등 유학 정보를 공유할 때 학과나 학점을 공개하면서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모교 학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인 정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입절차는 먼저 이화인 인증 구글 폼에 캡처한 인증화면을 작성하면, SAGE 운영진이 인증 승인 후 주말마다 SAGE 카페 초대장을 송부하는데, 이 초대장을 통해 SAGE 카페에 가입할 수 있어요(<https://sites.google.com/view/join-sagewha/process>).

송 __ SAGE 카페에서는 칼리지, 석사, 박사, 포닥 등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유학 준비생들의 유학 준비 자료 공유와 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유학생들의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카페를 통해 약 1,300명의 이화인들이 유학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당해 유학에 합격하여 출국을 준비하는 이화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게시판은 먼저 유학 준비생 기준으로 학교 탐색, 어학시험 준비, 연구계획서·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 준비, 장학금 탐색, 교수님 연결, 합격한 후 준비사항 등 각 과정별로 나뉘어 있고요, 유학생 기준으로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국가로 나뉘어 있어요. SAGE에서 관리하는 '진학 현황 지도'를 통해 유학생들의 진학 현황을 국가별, 도시별, 전공별, 프로그램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 7월 '제2회 온라인 유학설명회'를 마쳤는데요. 운영진으로서 느끼는 성과는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요? 또 1회 때와 비교한다면

SAGE 가입 절차



SAGE의 국가별, 전공별 진학 현황 지도

어떻게 달랐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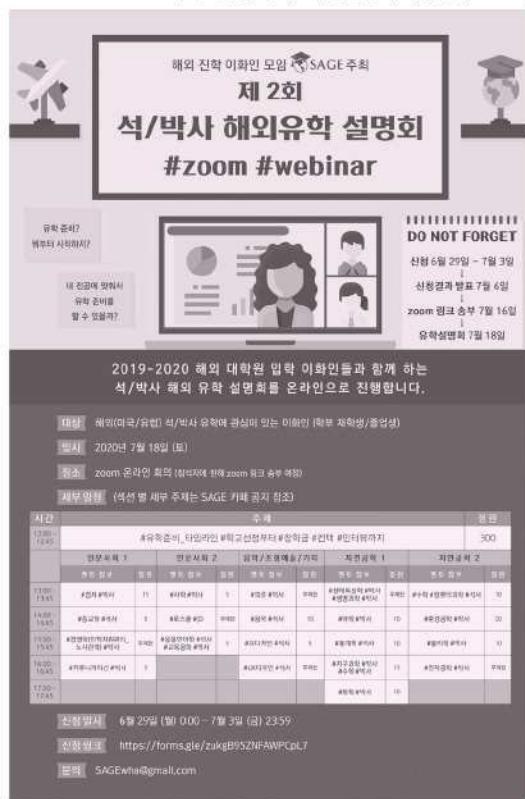
이 유학설명회는 당해 해외 대학(원)에 합격한 이화인들(멘토)이 출국 직전(6~7월경)에 유학을 준비 중인 이화인들(멘티)에게 최신 정보를 알려주는 장이에요. 2019년 1회 유학설명회 운영진들의 말을 따르면 유학을 준비하는 이화인이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개최해 보니 300명 이상이 모여 강의실 자리가 부족했다고 해요. 그만큼 유학을 준비하는 이화인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2회 때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어요. 출국 준비 이화인들만 멘토로 참여했던 1회 때와 달리 2회 때는 해외 유학 중인 이화인들도 멘토로 참여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 설명회 당시 호응이 아주 좋았어요.

송 2회 유학설명회는 코로나19로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어려운 상황에도 1회 때보다 더 많은 이화인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5일 동안 멘티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구체적인 유학 정보를 공유해 주기 위해 알차게 준비해준 멘토들에게 고마워했어요. 22명의 멘토들이 출국 준비나 유학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열정적으로 발표해주신 덕분이죠. 또 많은 멘티들이 운영진의 체계적인 유학설명회 운영을 칭찬했어요. 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작년과

다르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하다 보니 운영진들은 협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설명회 내용 유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느라 고생했는 데요, 참석자들이 이 점을 이해하고 잘 지켜줘서 감사했고요.

강 설명회 구성이 좋았다고 평가해 주셔서 매우 뿌듯했어요. 강의 형식의 공통 세션과 실시간 화상회의 형식의 개별 세션을 확실히 분리해서 각 전공에 맞춰 자세한 유학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전공뿐만 아니라 연구계획서나 면접 등 멘토가 자신 있는 분야도 설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것까지 세션을 분리해 설정해두었던 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설명회 전에 각 멘토들에게 해시태그 형식으로 발표 주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덕분에 멘티들의 진학 희망

2020년 7월 열린 '제2회 온라인 유학설명회' 포스터



전공이 멘토들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아도 관심이 있는 세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이 다만,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짧았고 세션 정원이 한정적이었던 점, 지역이 가장 많이 유학 가는 미국으로 편중되었던 점, 대부분의 멘토가 유학 직전이다 보니 유학 생활 정보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SAGE 참여 이화인들은 주로 어떤 도움을 받나요?

전 보통 세부 전공에 맞춰 유학을 준비하는데 오랜 기간 혼자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종종 유학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순간이 와요. 이런 준비생들을 위해 SAGE는 유학 준비 스터디를 꾸릴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모임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SAGE를 통해 5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스터디를 운영해 봤는데요, 정 보교류나 지원서류 교차 검토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힘든 시기에 서로 격려해 주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SAGE의 가장 큰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유학 준비 면에서 코로나19 이전과 달라진 점은?

송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대학원 입시에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TOEFL과 같은 어학시험이 많이 달라졌어요. 코로나19 초기에는 학원 다니기도 어렵고, TOEFL 재택 시험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신빙성과 난이도에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학시험을 비롯한 입시 과정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인 대상 혐오 범죄를 대비해야 한다거나 장학금이나 학비 보조 등 편딩 조건이 그

전보다 까다로워진 것도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점이에요.

전 취업 감소로 기존 재학생들이 졸업을 못하게 되자 많은 학교가 신규 학생 모집을 중단하기도 했어요. 안 그래도 현지 학생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은 국제 학생인데 코로나19로 인해 편딩 확보가 더욱더 어려워질까봐 걱정이에요.

전 코로나19 이후 미국 대학원 지원 시 GRE(미국 대학원수학자격시험)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SOP(학업계획서)가 중요해지고 지원자와 학교·학과에 대한 적합성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해요.

운영진으로서 모임을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차원이라면 더더욱 힘들 텐데 어떤가요?

송 운영진들이 모두 직장인이거나 학생이라 회의 시간을 맞추기 힘들고, 아직 외부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유학설명회를 제외한 SAGE 운영 비용도 운영진의 사비로 해결하고 있어 어렵긴 해요. 하지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보면 이화인들만의 결속력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유학생들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SAGE에 더 많은 회원 유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학 중인 1, 2기 운영진들이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커뮤니티 운영진들은 모두 국내에 있고 현업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에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이화동창》을 통해 SAGE를 알리면 유학 중인 이화인들도 많이 유입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웃음)

강 생업과 병행하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

하고, 마음만큼 시간을 쓴지 못해 아쉬움이 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화라는 이름으로 모여 비슷한 꿈과 목표를 가진 이화인들, 이미 목표를 이뤄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화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동기부여가 돼요. 적은 인원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학부생처럼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이화인들도 운영진으로 합류해서 유기적으로 SAGE를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전 코로나19로 운영진 회의도 온라인으로 제한되고 올해 설명회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라 이런저런 고민들도 있지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SAGE를 운영하고 있어요. SAGE는 교류와 나눔의 기능이 가장 커서 더 많은 유학생들과 유학 준비생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것이 SAGE의 가장 큰 고민이자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총동창회와 동창회 해외 지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송 저희 모임이 이제 시작이라 아직까지는 유학 준비생들이 유학생들보다 조금 더 많아요. 현지에서 유학 중인 많은 모교 동창들이 이 기사를 읽고 저희와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실제 유학 가 있는 여러 지역의 모교 동창들을 모아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싶은 바람도 있어요. 저희 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동창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해외에 있는 이화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 상황이라 같은 지역이라도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들었어요. 특히 현지에서 유학 중인 20~30대 이화인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찾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SAGE가 주축이 되어 온라인으로 유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자

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모임을 조직하는 데 총동창회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강 유학생에서 그치지 않고 유학을 마친 다음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이화인들도 교류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막상 해외에 나가면 한국의 포털사이트나 서버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처럼 카페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글로벌한 링크드인(LinkedIn)과 페이스북 페이지도 개설했는데요, 운영진도 4명밖에 안 되고 재정적인 지원도 아직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운영진이 보충되고 학교 측이나 선배 동창들에게 지원을 받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화인들을 모을 수 있는 콘텐츠도 만들고 홍보도 하면서 계속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SAGE가 준비 중인 행사가 있나요? 또 SAGE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지요?

이 현재 올해 해외 대학(원)에 합격한 이화인들을 대상으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온라인 모임의 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번 해에도 6~7월 경 온라인 유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송 장기적으로 더 많은 유학 준비생과 유학생들이 SAGE에 가입해서 각 국가·도시별 게시판과 로스쿨·MBA 등 특수 학과를 위한 게시판까지도 개설하는 것이 목표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화인들이 지역별, 전공별로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좀 더 확장된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눈앞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유라이크코리아는 IT 기술을 축산업과 결합한 스타트업이다. 수집한 동물들의 생체 데이터를 AI 기술을 통해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분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축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첨단 과학 기술을 축산과 접목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라이크코리아의 설립자이자 대표 김희진(컴공 05) 동창을 만났다.

-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젊기도 하지만, 컴퓨터 공학 전공자인데 지금 축산에다가 바이오 헬스케어를 하고 있으니 그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대학 때부터 저는 컴퓨터 공학의 순수 기술보다는 다양한 응용 신기술에 더 눈길이 갔어요. 특히 축산 쪽은 저희 아버지가 축산 전공을 하셔서 친숙하기도 했고요. 축산업을 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 가축 질병을 케어하는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 그쪽으로 연구하다가 아예 이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사 과정 중이었던 2012년에 창업하고, 2015년 라이브 케어를 론칭하며 시장에 진입했어요.”

- 처음 박사 과정 할 때부터 이런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나요?



“처음부터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출발점은 구제역 살처분 처리 과정을 접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구제역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본격적으로 관련 솔루션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들을 위해 제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사업으로 연결하게 됐어요.”

- 소의 위에 캡슐을 넣는다는 아이디어는 벤치마킹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에 없던 독창적인 생각인가요?

“먹이는 방식이라는 게 특이한 것은 아니었지만,

장치를 위 속에 넣어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는 아이디어는 제가 고안하고 설계했어요.”

– 배터리는 생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나요? 교체가 필요할 텐데요.

“배터리 수명이 숙제였어요. 한번 들어가면 도축될 때까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했지요. 소가 보통 짹계는 3~4년, 길게는 6~7년 키우거든요. 그래서 소의 생애 주기를 커버하는 배터리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센서 기술은 많이 발전했는데, 어떻게 배터리 기술을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이것이 저희 노하우이지요.”

– 배터리가 체내에 들어가면 몸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흔히 보는 배터리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캡슐 크기가 휴지심 정도인데 이 안에 배터리와 IoT 센서, 통신모듈 등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요. 소가 반추동물이잖아요. 이것을 소의 입에 블링 건으로 쏘아식으로 내려가도록 하여 4개로 구성된 소의 위 중 반추위인 2위 내에 안착시키도록 설계하고 생체 정보를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든 거죠. 기술 개발 단계에서 이 캡슐이 소에게 무해하고, 체내에서 안전하다는 동물용 의료기기 인증을 국내 및 일본에서 받았지요.”

– 바이오칩을 피부에 이식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도 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칩을 심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쉽게 꺼낼 수 있어 위변조의 위험이 항상 따른다는 문제가 있어요. 캡슐형은 도축 전에는 인위적으로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보 보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저희가 구축한 라이브 케어 서비스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여 소의 탄생부터 성장, 도축까지 전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의 건강이라는 동물복지 차원뿐 아니라 도축된 육우를 먹는 소비자들에게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직접 보니 캡슐이 생각보다 큽니다. 프로젝트 형태가 아니라 박사 과정 중에 개인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비용이 만만치 않았겠어요.

“금융 지원을 받지 않고 개발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기술 개발이 끝나고 제품 양산 시점이 되었는데 자금이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손 벌리는 것 외에는 편딩을 받거나 하지 않고 자력으로 개발했는데, 제품이 완성되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려니 가족의 지원도 중단되고 더 이상은 여력이 없었지요. 하지만 제가 개발한 시스템의 기술력과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버텼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부족한 자금 확보를 위해 집을 작은 전세로 옮겨 직원들 월급을 주고 결혼 예물도 전당포에 맡겼던 시기가 있었어요.”

– 축산농가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농가의 관심은 질병 문제보다는 생산성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소가 아프면 빨리 낫게 하려고 항생제 같은 약을 남용했지요. 소를 아프지 않게 해서 팔아야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정기를 찾아주거나 분만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업 분야는 빨리 임신을 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였어요. 요즘에는 자연교배 없이 전부 인공수정을 하거

든요. 발정기를 찾아서 수정 적기 타임을 알려주면 그때 수정을 시켜서 임신 수태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발정 관리까지 같이 되게끔 서비스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생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할 수 있기에 발정, 분만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주었지요. 기존 축산 기자재들도 발정 관리를 위한 제품이 많이 있었어요. 목걸이나 발찌 같은 형태인데 발정기에는 소가 많이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을 포착하는 장치들이지요, 주로 수입품이고요. 하지만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는 저희가 세계 최초였고, 정확도 면에서 단연 월등했어요.”

- 축산농가에서 매우 반겼겠네요.

“물론 국내에서도 환영했지만, 사실상 저희 타깃은 글로벌 시장이었어요. 일본에 갔더니 분만 관련 데이터만 제공해 주면 모두 저희 제품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외규 송아지 한 마리가 1,000만 원 정도로 고가인데, 어렵게 임신시키고 분만 단계에서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가 캡슐을 통해 질병도 예방하면서 발정 관리. 분만 관리 등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저희가 선도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제 거의 따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는 그 시장에 맞는 서비스를 개척하고 있어요. 유목을 하는 브라질의 경우 소를 잃어버리는 고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스템에 GPS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하여 소의 유실률을 줄였지요.”

- 이제 학창 시절로 가 볼까요? 어떻게 지냈는지요?

“저는 학부 때 뛰지 않고 그냥 평범한 스타일이었

어요. 그냥 뭔가를 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나중에 말씀하시길 제 눈이 반짝반짝했다고 해요. 언제나 바쁘게 총총걸음으로 뛰어다니던 학생이었다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선후배와 친구들을 잘 챙기고 학교에서 10년이 넘게 온갖 잡일(?)과 총무 역할을 도맡아 했어요. 대학 4학년 때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취업 준비를 하던 중 교수님께서 석사 진학을 권유해 주셨어요. 석사 후 대기업 연구소에 취업할 기회가 있었지만, 교수님께서 강력히 박사 과정을 제안해 주셔서 계속 공부하게 되었어요.”

- 유라이크코리아는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산업은행으로부터 50억의 투자를 받고, R&D를 전담하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확장일로에 있습니다. 채용을 할 때 중점을 두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봐요. 제일 중요



라이브케어 송아지와 함께

한 것은 ‘꿈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비전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아요. 저는 저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진심으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요. 이런 분야의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 지식보다는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태도와 인성을 많이 봅니다. 축산이나 IT를 전공하지 않아도 본인이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본인만의 강점이 있어야 합니다. 단, 우리 도메인을 이해하고자 하고, 축산에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겠지요.”

–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비즈니스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책임감을 더하여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한테도 물려받은 사업적인 마인드입니다.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 목표는 ‘가축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고 가축이 행복하면 사람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윤만이 목적이 아니라 축산업과 가축에 도움 되는 솔루션을 만들고, 이 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려서 애국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축산 선진국은 아니지만 IT는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서 해외 시장을 석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해외에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우셨던 점은요?

“월급날이 너무 빨리 돌아와요. 직원들은 천천히 온다 하지만(웃음).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자금과 인력의 문제입니다. 남성 대표들은 인맥으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

려는 경향이 아직도 있어요. 이화인으로서 뭔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여성들이 워낙 독립적이잖아요. 저도 ‘선배님 도와주세요’ 하기도 하고 후배들을 끌어와서 일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여자들은 결혼 생활을 병행하기 용이한 안정적인 대기업으로 가려 하니 스타트업에서 같이 고생하자고 후배에게 말하기 미안한 거예요. 여자 대표들은 대체로 양심적이고 책임감이 강해 그런 부탁을 잘 못하지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 앞으로 사업을 사람 쪽으로도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본에서는 요양병원과 같은 곳에서 관리가 무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헬스모니터링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일본 총판을 통해 베타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패치 형태로요. 저희가 가진 기술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이 사람이 정상 상황인지 비정상 상황인지 아니면 긴급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며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2017년)

능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경우 난임과 같이 임상이 필요한 분야는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우나 닭, 소, 그리고 반려견까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데이터로 확인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질병에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창업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내 회사의 핵심 가치나 핵심 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면 안 됩니다. 대기업이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지 회사가 존립할 수 있거든요. 저도 대기업에서 데이터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데이터 안 줘도 좋으니까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우리 같은 서비스가 없으니까 결국 다시 일하게 됐거든요.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할지 방향성을 갖고 더 멀리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 앞으로 포부는요?

“당연히 국내 축산업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2017년 농림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특히 축산업에 기여했다고 상을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축산의 선진화된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싶어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본이 없고 질병 때문에 유량이 작아 소 키우는 것이 힘든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저희 서비스를 보급해서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는 안전한 먹거리와 클린푸드에 관심이 많

아요. 라이브케어로 돌보는 가축들은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쓸 만큼 심각하게 아프기 전에 가볍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축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 가축이 도축되어 유통된다면 건강한 먹거리에도 저희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라이브케어를 브랜드화해서 라이브케어로 키운 소가 건강한 소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려 합니다.

- 이화 선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기회를 접하고,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화에서 배운 게 독립성이에요. 독립적으로 기회를 찾아내고 스스로 감당해 낸 경험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만큼은 남자들에게 쓸데없이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책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 모두에게 동일한 이화 DNA가 있다고 봅니다. 사원 면접 때 입사하고 10년 뒤에 뭐 하고 싶나 이렇게 질문하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겠다고 답하는 사람이 참 바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투자하지 않고 희생이나 인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내가 책임질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자체가 책임감이 있는 인상을 주고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균형을 잡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글·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비즈 /

유안정형외과 피부비만항노화 클리닉 원장
안지현 동창

“아름다움이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것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연예인 주치의에서 동네 주치의로

건강 관련 방송에서 ‘피부 비만 전문가’ ‘동네 항노화 주치의’ 등 수많은 수식어로 소개되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있다. 바로 유안정형외과 피부비만항노화 클리닉(이하 유안 클리닉)의 원장 안지현(생명 91) 동창이다. 유안클리닉은 안 동창이 50세 넘어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인 남편 유광현 원장과 함께 2017년 개업한 병원이다.

유안클리닉을 개업하기 전 안 동창은 청담동에서 17년간 피부리프팅·비만·‘쁘띠’ 성형 등 미용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AnG클리닉을 운영했었다. 회장님 사모님이나 연예인 등 경제적으로 상위 1%에 속하는 고객들이 주로 이 병원을 찾았다. 안 동창이 알 만한 연예인 주치의로 입소문이 난 것도 그때부터다. 하지만 진료가 한정적이었고, TV를 보고 지방에서부터 찾아오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가정의학과 본래 취지의 보편적 진료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 마음은 남편과 함께 유안클리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환자의 건강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의사다. 아주 흔한 일반 질병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친근한 의사라는 얘기다. 그런 의미의 ‘동네 굿닥터’가 되고 싶었던 안 동창은 100세 시대에 필요한 항노화 관리 전문 병원의 필요성을 늘 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호르몬과 영양 균형, 근골격계 노화까지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형외과의 협진이 필수였다. 그래서 당시 부천 예손병원장으로 있던 남편을 설득했다. 20년간 척추협착증, 디스크 등 척추·관절 수술만 수만 건을 해냈으니 그 분야에서 남편만큼 유능한 의사도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남편은 저랑 살 수는 있지만 동업자로 일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며 고민했으나(웃음), 동네에서 언제나 물어볼 수 있고 가족 모두의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운영하며 동네 주민들에게 봉사하자,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평생 현역이 되자는 제 말에 설득되어

결국 병원을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청담동 연예인 주치의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동네 주치 의료의 변화를 감행한 안 동창은 환자의 삶까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지금이 만족스럽다.

젊은 시절 한 자락을 장식했던 아름다운 시간들

모교 재학 시절의 에피소드를 묻자, 이화교 밀기차 꼬리를 밟으면 하루가 즐거웠던 기억, 꼭대기에 있는 종합과학관을 올라다니느라 멋진 구두를 포기해야 했던 기억, 모교 법학과의 한 살 터울 언니와 함께 등교했던 기억, 1987년 이화광장에 ‘어 마무시한’ 숫자의 이화인이 모여 한목소리로 노래 부르며 시위하다 쇠루탄 가스에 눈물 흘리던 기억들을 소개한다. “그중에서도 압권은요”라는 말로 시작된 에피소드는 안 동창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다.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엄마 차를 빌려 학교에 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후문을 약간 긁었는데, 후문 교체하는 데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경비아저씨의 말에 너무 놀라 엉엉 울었어요. 다행히 약간의 페인트칠로 마무리 됐지만, 아직도 모교 후문을 보면 그때의 아찔했던 순간이 떠올라요.” 지금 돌아보면 젊은 시절 한 자락을 장식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이다.

안 동창은 학부 졸업 후 생물학과 대학원 1학기 때 전국대 의대에 편입해 아산병원에서 가정의학 과를 취득한 케이스다. 당시 의대 편입시험은 전국대가 유일했고 남편은 안 동창이 의사로서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책도 사주고 공부도 봐주며 물심양면 지원해 준 든든한 후원자였다. 대학 1학년 때 동아리 친구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의사로서 안 동창 인생에서 승승장구의 날만 있던 것은 아니다. AnG클리닉 개업 6년차에 번아

웃중후군이 찾아왔던 것. 당시 6개월간 불면증으로 수면제까지 먹어가며 진료를 해야 할 정도였다. 경쟁이 심한 미용의학의 메카 청담동에서 부원장 2명과 10여 명의 직원들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과중했던 탓이었다. 열정과 집착으로 병원과 고객 화장에만 전력하다 보니 삶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던 셈이다. 결국 병원을 폐업하고 잠시 쉬다가 차의과대학 소속 ‘차옴’ 안티에이지 병원에서 디톡스 슬리밍 센터장으로 취직했다. 심적으로 여유 있는 병원 생활을 하며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자 불면증이 해결되었고 체력도 다시 좋아졌다.

환자의 마음까지 교감하는 ‘심의(心醫)’가 되고자

유안클리닉에는 ‘환자에게 이로운 진료’가 올바른 진료라는 안 동창 부부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정형외과는 실손보험으로 오남용되는 도수치료 대신 통증주사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로 근본적인 자생력을 키우는 치료와 운동 치료 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한다. 피부비만항노화 클리닉 역시 리프팅 전문진료와 치매 유전자 검사·텔로미어길이 검사·호르몬 불균형 검사·소변 유기산 검사·음식 알러지 검사 등을 통해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주는 맞춤형 비만 치료, 그리고 항산화제 영양 요법 등을 활용한 항노화 치료를 하며 환자가 건강하게 나이들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안 동창은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것이 환자의 마음까지 교감할 수 있는 ‘심의(心醫)’가 되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가족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1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단골 환자의 집안 대소사까지 기억하고 다른 과 관련이라도 궁금한 것이면 무엇이든 마음껏 문



2018년 열린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에서 강의하는 모습

의할 수 있도록 환자들을 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덕분에 ‘과잉 진료가 없는 병원’, ‘친절한 병원’으로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 있단다.

부부가 함께 병원을 운영해서 좋은 점은 미용 진료와 통증 진료를 동시에 보는 환자들이 늘어 남편과 환자의 상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은 먼저 체중을 감량하면 상당히 호전되는데, 정형외과 전문의와 비만 전문의가 같이 진료해 주니 환자 입장에서도 살을 쉽게 빼고 통증도 빠르게 개선되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고맙게도 세무·회계 등 행정상의 복잡한 것들을 남편이 알아서 처리해 주니 안 동창은 체력 소모 없이 더 쌩쌩하게 진료에 매진할 수 있어 좋다. 그렇다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 고 입을 연 안 동창은 “퇴근 시간이 같아 다른 곳으로 혼자 일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웃으며 말한다. 그 말에서 30년 가까이 함께한 부부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인생의 선물이자 비타민 ‘슈퍼 패밀리’

20년 동안 비만 진료를 해온 안 동창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뭐니 뭐니 해도 환자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사업에도 실패해 죽음까지 생

각했던 40대 비만 여성이나 20kg 감량 후 화장품 판매자로 취업해 잘살게 된 경우나 불임으로 고생하던 30대 비만 여성이나 체중 감량 후 임신이 되어 가정을 이룬 경우, 그리고 척추협착증으로 허리 통증이 심했던 70대 여성 어르신이 병원에 왔다가 10kg 감량 후 언제 그랬냐는 듯 통증 없이 여행까지 다녀온 경우 등 비만 치료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큰 보람과 기쁨을 주는 ‘스토리 의학’ 임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안 동창은 진료뿐 아니라 방송 출연, 대중 강연, 유튜브 채널 <유안티비> 촬영, 도서 출간 등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가 그 많은 일들을 그토록 잘해 내는 비결은 뭘까? “저의 타고난 DNA 가 ‘의료계의 아나운서’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웃음) 남에게 알려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 데다 어릴 때부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어서 가 아닐까요”라고 운을 떼더니, 무엇보다 중요한 원동력은 ‘가족’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 안 동창은 2010년 ‘슈퍼맘 다이어리’(케이블채널 ‘스토리온’)라는 프로그램을 찍으며 가족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고 소개한다. “그때 제가 슈퍼맘이 아니라 가족이 ‘슈퍼 패밀리’였음을 깨달았다”며 “매일 저녁 거실에서 1시간씩 웃고 떠들며 나누는 가족과의 대화가 제가 진료와 방송과 강의를 해낼 수 있게 하는 원천”이라고 서슴없이

피부비만항노화 클리닉을 찾은 환자와 상담 중인 안지현 동창



말한다. 그러면서 “가족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선물 이자 비타민”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웰에이징’의 비결은 ‘적정 체중’ 유지하기

여전히 20대 때의 체중과 연예인 못지않은 동안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안 동창은 얼마 전 한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를 과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진료와 왕성한 외부 활동 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할 텐데 이처럼 완벽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몸의 생체시계(Circadian) 리듬에 맞추어 생활합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취침시간이 거의 같지요. 아침에는 나물 반찬 3가지에 한식을, 점심에는 샐러드나 김밥 또는 준비해 간 도시락을,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로 먹고, 저녁식사 7시 이후로 공복을 유지하는 것도 비결입니다. 일종의 12시간 단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영양제도 적절히 챙겨 먹고 무엇보다 7시간을 잘 잡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정도 하고요.”

50대에도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는 “45세부터 매년 본인의 생일선물로 리프팅 레이저를 셀프 선물한 덕분”이라고 소개한다. 콜라겐을 재생시켜 얼굴 노화를 늦추는 이런 시술이 동안 유지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 또한 쉬는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정도로 헷볕 차단에 신경

쓰고 평상시 물을 자주 마시는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한다.

안 동창은 무엇보다 출산 후 비만이나 갱년기 비만이 노인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생애주기 중 체중이 크게 달라지는 변화를 간과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비만하면 오래도록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기 힘들고 비만에서 출발한 만성 염증이 아픈 노년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동창은 의사로서 “100세 시대 건강 수명을 늘리는 웰에이징 비결의 기본은 ‘적정 체중 유지하기’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안 동창은 자신의 책 『나이 들지 않는 절대 원칙』에서도 오래도록 젊게 살기 위해서(Young) 잘 먹고(Eat Well), 잘 자고(Sleep Well), 많이 움직이고(Stay Active), 스트레스 관리(Stress Less)를 한다는 뜻의 ‘Y-ESSS’의 생활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질병의 뿌리는 삶의 일상에 존재하고 건강은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 안 동창은 가족 같은 마음으로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개선시키는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진료든 유튜브든 강의든 능력이 허락하는 한 건강한 삶을 전파하는 역할을 평생도록 하고 싶다는 안 동창의 소박하면서 알찬 비전에 공감과 성원을 보낸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시공간을 넘어 동창과 소통하는 온라인 채널

2020년 총동창회는 많은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두 해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소통 방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총동창회에서는 지난해 5월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KDljlCduazbmhFuL-9mZQ>)을 개설하고 행사 영상을 공개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에 적극 힘쓰고 있다.

총동창회에서는 그동안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ewhaalum.or.kr>)를 통해 총동창회 소식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화동창》

도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에 개설된 공식 유튜브 채널은 매체의 특성상 사진보다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총동창회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YouTube' 버튼을 클릭하여 손쉽게 이동할 수도 있게 하였다.

총동창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총 9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제일 처음 게시한 것은

이화의 사계절을 담은 'Ewha 4 Seasons' 동영상이다. 모교 황규호(교육학과) 교수의 사진으로 만든 3분 50초의 짧은 영상으로 1.4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호응을 보였다. 이화의 봄, 학관 앞에 흐드러지게 핀 하얀 목련을 기억한다면 이 동영상을 통해 추억을 소환해 보길 바란다.

다음 영상은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2020년 5월 12일)이다. 이 영상은 사전 제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시



간 10분가량의 전체 영상은 예배 시작을 알리는 인트로, 1부 장윤재 교목실장 집도의 예배, 2부 남상택 총동창회장과 김혜숙 전 모교 총장이 전하는 기도 메시지, 3부 이지선 동창의 간증으로 구성되었다. 1부 특송으로 ‘이화그레이스콰이어’ 30여 명의 단원들의 개별 영상이 모자이크처럼 화면을 가득 채우며 하모니를 이루는 순간의 그 특별한 감동을 꼭 느껴보길 추천한다.

세 번째는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이화 창립 134주년 동창의 날 기념식 및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2020년 5월 29일) 40분가량의 영상이다.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처음 시도된 기념식에서는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에 이어 졸업 50주년과 30주년 ‘재상봉 동창’ 기념품 전달 순간 등이 담겨 있다. 2부에 치러진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분홍 마스크를 쓴 ‘올해의 이화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거리 두기 규칙을 준수하며 단상 위에 멀찍이 떨어져 앉은 이화인의 모습과 빈 객석이 코로나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상은 ‘총동창회 송년인사—2020이화를 응원합니다’ 20분가량의 영상이다. 매년 11월 말에 열리는 ‘이화인의 밤’이 취소된 아쉬움 속에 총동창회 임원들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제작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모교 발전기금 1억 원 기증식을 비롯해 모교에서 전하는 소식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 밖에 총동창회는 ‘2020 가을 온라인 대바자회 행사’(2020년 9월 15일~17일)를 열면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준비한 홍보 동영상을 3일간 송출하였고, 행사 종료 후 영상을 내렸다. 또한 ‘이화가족성탄예배’(2020년 12월 3일)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많은 감동을 주었지만 아쉽게도 동영상 저작권 문제로 다시보기가 어렵다.

총동창회 유튜브 계정에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빛난 이화 동창의 활동과 고충이 온전히 담겨 있다.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 구독자 500명, 조회수 2만 8,000여 회에 그치고 있지만,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활용도를 높이려 아디어를 짜내고 있다.

모교에서는 이미 공식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하여 EWHA SNS 5총사—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활용하여 이화를 알리고 있다. 바야흐로 언택트 시대, 이제 더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24만 이화 동창은 시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어 소통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올해 ‘135주년 동창의 날 기념식’은 어떤 모습으로 치러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채널 ‘구독’과 해당 영상 ‘좋아요’ 버튼을 꾸욱 눌러보길 바란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캄보디아 이철희 동창

공동체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다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술렁거리 는 가운데, 의료 상황이 열악한 캄보디아 정부도 예민하게 대처하고, 진료소 주변의 사설 의료기관 들이 감염 우려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기도 하여 만성 질환자들이 우리 진료소를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전체 진료 받은 사례가 14.4% 증가하였습니다. 현지인 의사 선생님이 성실하게 진료하고 우리나라에서 후원 해 주신 약품들이 효과가 좋아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 11월 17일(화) 국내 NGO 등록이 되었습니다. 진료사역 이외에 5년 동안 환경보호운동과 교육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2021년 첫 번째 대상인 4개 마을의 이장님과 면장님의 동의와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을 하셨던 선교사님을 가까이 두셔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방법적인 면, 교육의 중요성, 결과에 대한 마음 바우기 등 여러 조언을 받게 하시니 이 운동 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1월에 시작한 4개 초등학교 보건사역은 3월초까지 각 학교의 3학년 학생들의 신체검사와 건강 상태 확인, 보건교육, 학교에 응급처치 박스 제공 등 이었는데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불규칙하게 되어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신체 검사 결과는 3개 학교 어린이들이 비슷한 수치로

저체중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평균 BMI는 14.97로 이 지역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코로나19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병균 확산 우려로 전국의 학교가 작년 3월부터 조기 방학에 들어가며 마을 어린이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니 무료해진 어린이들을 마을에서 만나다가 아예 진료 소로 오게 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진료소에서 오후에 성경 교재로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어린이들이 성경과 찬양을 많이 배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전염 우려로 옥외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개학할 때까지 공부하니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잘 이해되고 배우는 것이 쉬워졌다고 즐겁게 말합니다. 7월에는 주일에 진료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 하며 성경에 익숙해지고 어린이 교리문답 진도가 1/4은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은 불교 사회라 가족, 친지, 이웃들 모두 전통 종교를 신앙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가 없는 어린이들은 계속 모임에 참여하며 조금씩 하나님 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그룹이 저와 함께 환경보호 운동을 하며 신앙과 삶이 연결되는 훈련을 하여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기를 간구

합니다.

현지 교회의 리더들인 학교 교사 두 명이 매주 목요일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계셔 인본주의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부족한 교리와 묵상을 도와드려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 교회의 리더들 대부분이 성경 해석과 적용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들도 교리를 바로 알도록 하면 좋겠다고 선생님 두 명이 2~3차례 말씀하셔서 간단한 교리문서를 크메르어로 번역하여 자료로 만들어 교회 리더들 모임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바른 교회가 세워지며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일을 위해 저 스스로 계속 준비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매주 금요일 프놈펜에 가서 성경 묵상 모임에 참석하여 4~5명의 선교사들과 말씀의 교제를 하고, 진료소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과 시장 보기를 위해 진료소를 나설 때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 마음을 내리누르는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곳이 오고 싶은 곳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가 있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을까?’ 주께서 이곳에 저를 두신 주권을 믿기에 도망갈 생각은 할 수도 없었고, 사람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제 내면은 흑빛으로, 마귀가 자꾸 넣어 주는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붙잡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두려워 계속 저를 부인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께서는 끝까지 혼자 견디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단기 선교사를 보내 주셔서 같이 지내며 협력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많은 위로를 주시고 제 마음속의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어느새 저도 모르게 걷어가셨습니

다.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방주 속의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중거합니다.

단기 선교사는 떠났지만 이곳의 사랑스러운 어린이들과 주민들로 인해 프놈펜에 갔다가 돌아오는 제 마음이 가볍습니다. 오후에 미리 와서 진료소 대문 앞에서 기다리며 떠드는 어린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정겹습니다. 공부하러 와서 싸우고 울어 말씀으로 화해시키면 베티다가도 순순히 따르는 어린이들, 기도를 못 한다고 하면서도 한마디라도 하게 하면 저를 흉내 내어 기도하는 어린이들, 풀 뽑고, 자갈 걷어내는 일을 즐겁게 하는 어린이들, 식당에 데려가니 밥을 세 접시나 먹어 치우는 배고픈 어린이들, 카사바 가루로 만들어 파는 식빵을 맛있게 먹는 어린이들… 이곳에 오고 싶고, 있고 싶은 곳이 되게 하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경이롭습니다. 하나는 제 마음과 생각이 변한 것이고, 하나는 공동체를 이루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명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말씀으로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고국에서 선교의 길을 함께 걸어 주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현신을 주께서 아시고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실감 나게 느끼지 못해도 배후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인내의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글·이철희(간호 88)



총동창회 소식

2020년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심의

2021년 첫 정기임원회가 2월 18일(목) 오전 11시, 총 43명의 임원 중 32명 참석, 위임 5명, 불참 6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줌(Zoom) 화상 회의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2월 16일(화) 오후 2시 열린 부장회의에서 심의한 2020년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열려 통과되었고, 2020년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역시 통과되었다.

이어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이 펼쳐진 가운데 3월 정기총회 개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경숙(영문 70) 고문은 정기총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예측하지만 정기총회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며,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진행 방식은 회장단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임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임원들은 개최 방식은 회장단에 일임하고 3월 13일(토)에 개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2021년 4월 김옥길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에서 추진 중인 ‘김옥길 선생님과 함께한 추억이 담긴 사진’과 각종 자료 수집에 임원진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모교 대외협력처와 가진 회의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총동창회 자체에서 동창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음을 안내하고, 차기 회장단이 이 문제에 대해 재논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모교에 내는 대학별 후원금을 총동창회를 통해 후원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첫 번째로 사범대학에서 총동창회를 통해 후원금을 보냈다고 안내하였다.

안양의 집에 떡과 과일 전달

총동창회는 2021년 2월 25일(목), 2019년 제13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인 사지숙(교육 55) 동창이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설원복지재단 산하 복



지시설 안양의 집에 떡과 과일을 전달했다.

안양의 집은 70여 명이 청소년이 그룹홈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로, 매년 후원처를 지정해 봉사하고 있는 약대 동창회에서 올해 새로운 후원처로 결정한 곳이다. 총동창회는 이날 약대 동창

회의 시설 방문 소식을 접하고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떡과 과일을 전달하며 원생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약대 김용재(약학 82) 동창회장 및 박병희(약학 84) 문화부장 등이 동행 했다.

■ 남상택 회장, 학관 부분 건축 기공식 및 총장 이취임식 참석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2월 25일(목), 모교 학관 앞 광장에서 개최된 ‘학관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모교는 학관 완공 57년을 맞아 리모델링·부분 재건축을 통해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미래교육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며, 이번 리모델링과 부분 재건축 공

사는 리모델링 영역(1만 795.44m²)과 재건축 영역(6,838.24m²)으로 나뉘어 2022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2월 26일(금) 오후 2시 김영의홀에서 열린 제16대 김혜숙 총장 이임식 및 제17대 김은미 총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 3월 정기임원회 개최

3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정기임원회가 줌(Zoom) 화상 회의로 열렸다. 이날은 3월 13일(토) 개최되는 신입 동창 환영회 및 정기총회가 주요 안건으로 토의되었다. 정기총회는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 개최할 예정이며, 당일 대면 참석 인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사는 총동창회 줌 화상 회의로 중계될 예정이다. 기타 안건으로, ‘올해의 이화인’ 및 ‘빛나는 이화인’ 추천을 독려하였으며, 2020년

‘이올(올해의 이화인 전체모임)’에서 받은 기부금 500만 원으로 동창회관 대회의실(806호) 및 소회의실(804호)의 무선 마이크를 교체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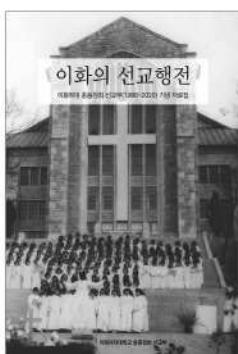
『이화의 선교행전』을 책으로 펴내며

총동창회 선교부가 1988년에 신설된 지 30년이 지나고 있다. 선교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뒤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몇몇 기도하는 동창들이 책자 제작을 제안하여 이화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게 되었다. 책 제작을 앞두고 선배들의 기도와 현신을 만나게 되었다. 초대 선교부장인 장상(수학 62) 전 총장의 인터뷰를 계획한 2020년 2월 10일(수)이 ‘김활란 선생 추모 50주기’ 날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모교 문이 닫혔고, 매주 화요일 모이던 이대 다락방도 닫혔다. 김활란 선생 50주기 추모예배도 멈추고 마치 세상이 정지된 듯했다.

‘빛이 있으라(창 1:3)’ 하시매 세상이 밝아지며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던가.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피조물의 죄가 실낙원으로 이어지며 인간의 역사는 죄인들의 역사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하셨다. 그의 십자가의 사랑이 죄인들의 어두운 역사에 빛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 이화의 역사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드려

내고 생명의 길을 보이는 사명을 다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일제의 핍박으로 선교사들을 추방하며 1932년 최초의 한국인 총장 김활란이 세워진다.

장상 선생과의 추억



여행을 통해 김활란 선생의 신앙과 이화 사랑 그리고 사역들을 훑어보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뜨거운 신앙으로 7인 전도대를 조직하여 전국을 다니며 ‘3,000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전도했다. 김활란 선생이 막사이사이상으로 받은 상금으로 1960년 4월 19일 세운 다락방전도 협회는 당시 대학생들의 신앙 활동 근거지가 되었고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활력체가 되었다.

모교 창립 80주년을 맞아 국제친교기도회가 일주일간 다락방에서 모였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일이 동남아시아는 물론 세계로 그 빛을 비추어 보자는 열망으로 국제친교기도회가 발족된다. 다락방에 쌓인 기도가 오늘날 오대양 육대주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창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 이화의 땅은 이 기도들을 기억하고 그 열매를 맺고 있다. ‘이대 총동창회 선교부(1988~2020) 기념 자료집’인 이 책자는 이화가 시작된 내용으로 서두를 열면서 5장으로 다듬어진다.

‘우월 김활란 선생 서거 50주년 기념’을 특집으로 하여, 선교부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선교부 사역 내용을 밝혔다. 동창들의 가슴 저미는 뜨거운 선교 현장 이야기도 담았다.

『이화의 선교행전』은 작은 시작이었다. 스크래튼 선교사를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이화의 땅과 건물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깊숙이 스며 있다. 숨겨져 있는 더 많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후배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도 먼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

창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의 손을 모으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 책자를 통해 한층 더 아름답게

퍼져나가기를 빈다.

글·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

2021년 총동창회 선교부 겨울 수련회

2021년 1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총동창회 선교부 겨울 수련회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요 8:12)'을 주제로 하여 줌(Zoom)으로 개최되었다.

김세희(대학원 17) 동창이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심으로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1부 순서는 김미순(기독 75) 전 총동창회 선교부장이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를 드리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장윤재 교목실장이 늦 6:32~36 말씀, '사랑과 구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질병과 역경 속에서도 사랑으로 구제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순종을 통해 기독교가 부흥하고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구제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였다.

뒤이은 현금 시간에는, 셋째 자녀 지민이의 여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에 귀국한 김은경(성악 04) 동창 선교사가 <시선>이라는 제목의 곡

으로 현금 특송을 해주었다. 현금 찬양 후에는 '사회공헌교수회'를 통해 이화여대의 선교와 기독교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 힘쓰는 초등교육과 김정효 교수가 모두를 대표하여 현금 기도를 해주었다.

2부 순서는 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이 인도했다. 북한의 스크랜튼을 꿈꾸는 탈북인 김다혜(국문 15학번) 재학생이 『헬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를 읽고 난 독후감을 나누어 주며 선교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를 전해주었다. 이어 티베트에서 선교하다 은퇴한 강현숙(교공 72) 동창 선교사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와 과정, 은퇴하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하여 간증했다.

이후 각지에서 줌으로 참석한 동창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수련회에 참석한 신경희(특교 84) · 김은례(대학원 15) · 이현숙(사학 74) · 김은경(성악 04) 동창 선교사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다. 늘 선교부에서 한마음으로 중보해 주는 박해나(기독 76), 영국에서 새벽 시간임에도 함께한 한현주(피아노 90) 동창 선교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2021년 선교부의 연간계획을 나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의 상황을 알지 못하나 주 앞에 선한 소원을 아뢰며 그럼에도 주님께서 선교부에 두신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었다.

글·이수진(조소 05)



모교 소식

제16대 김혜숙 총장 이임식 및 제17대 김은미 총장 취임식

모교는 2월 26일(금) 오후 2시 김영의홀에서 제16대 김혜숙 총장 이임식 및 제17대 김은미 총장의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 두기 원칙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여 교내외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취임식은 국민의례, 안선희 교목실장의 기도와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성경봉독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2월 28일(일)로 임기를 마무리한 김혜숙 전 총장의 이임사와 장명수 이사장의 공헌패 전달이 이어졌다. 그리고 3월 1일(월)로 임기를 시작하는 김은미 신임 총장 임명장 수여와 취임 선서, ‘이화 열쇠’ 전달, 취임사 등의 순서로 약 50분간 진행됐다.

김혜숙 총장은 이임사를 통해 “‘새 이화, 함께 빛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4년 전의 다짐대로 노력한 끝에 임기 초반의 어지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교양교육 개편, 교수자율평가제 도입, 약대 6년제 전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진입 등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혜숙 총장은 그동안 ‘미래를 개척하는 여성 지성’을 비전으로 ‘학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역량 강화’ ‘소통과 신뢰 기반의 공동체 윤리의식 추구’ ‘도전 정신으로 대학 교육을 선도’라는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또한 김혜숙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의 유연성과 역량을 개발하고자 대학 분권화 추진, 연구협력관 준공, 정시모집 계열별 통합 선발 실시, 교수자율 평가제 도입 등 대학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과 소통과 신뢰 기반의 대학 가치 실현에 기여해 왔다.

이어 3월 1일(월)부터 4년간 이화여대를 이끌어 갈 제17대 김은미 총장의 취임 선서가 진행됐다. 김은미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 여성 교육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이화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통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는 ‘볍고 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토대로 이화의 변화와 혁신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과 인류사회 위기 해결의 답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가 세계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구축, 투자를 통한 연구중심 대학 미래 전인, 이화 첨단융복합 메디클러스터 구축, 구성원 상호존중 문화 등을 통해 ‘새로운 시

대, 새로운 명문 이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통념과 금기를 깨고 변혁과 발전을 이루며 기독교 정신의 사랑에 따른 봉사와 헌신을 멈추지 않았던 이화 135년 역사와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가 던지는 도전과 위기에 서 기회를 창출하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새로운 명문 이화로의 길을 이화의 구성원들과 함께 굳건히 개척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1981년 모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김 총장은 1997년부터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국제대학원장, 대학원장 등 주요 교내 보직을 맡았다. 또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



김은미 총장

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외교부 및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삼성전자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교수, 직원, 학생, 동창의 참여로 진행된 직선제 투표와 이사회 선임을 거쳐 이화여대 제17대 총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 3,628명의 이화인,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다

모교는 2020학년도 전기 학사 2,352명, 석사 1,148명, 박사 128명 등 총 3,62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2월 22일(월)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총장 축사 및 졸업생들을 위한 축하 영상을 모교 유튜브 채널(youtube.com/ewhauniv)에 공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모교는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 2월 학위수여식 행사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월 21일(일) 진행 예정이었던 졸업예배도 취소됐다. 이를 대신해 모교는 총장 축사와 졸업 축하 영상을 제작 및 공개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축하 영상을 통해 김혜숙 총장은 "바깥 세계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개인 자아의 건강한 힘과 선택 능력, 사유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예기치 않게 팬데믹을 겪었듯 앞으로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며 "이화인으로, 여성으로, 세계시민으로, 타자에 대한 공감과 감수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 씩씩하고 열렬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학부 졸업생들이 입학한 2017학년도 입학식부터 시작해 지난 4년간의 대학 생활과 이화 캠퍼스를 추억할 수 있는 졸업 축하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자세한 내용은 모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졸업생 중에는 만 21세의 나이로 최연소

졸업하는 불어불문학과 김상아 동창이 포함됐다. 김상아 동창은 프랑스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1년 일찍 대학입시를 준비하여 언어특기자 전형으로 2017년 모교 불문과에 입학했다. 휴학 없이 8학기 만에 학업을 마치고 영예의 졸업장을 받게 되었으며 3월에 모교 통역번역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고령 졸업생은 만 59세 나이에 대학원 여성학과 졸업장을 받게 된 강지연 동창이다. 강지연 동창은 정외과를 졸업하고 타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출산, 양육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이 사회 변화에 반영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로 모교 일반대학원 여성학과에 진학, 8년 만에 석사모를 쓰게 됐다.

또한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태국,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5개국 출신의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장학생 13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EGPP는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교육하는 이화의 특별한 세계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EGPP 졸업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또는 모국으로 돌아가 모교에서 쌓은 교육 역량을 널리 발휘할 예정이다.

이화인 14명 국가고시 합격, 최우수 대학 위상 확고히

인사혁신처가 2020년 12월 29일(화)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모교는 교육행정직 수석합격의 영예를 차지한 조예림(사회과교육과 14학번) 재학생 및 동창 등 총 13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며 국가고시 합격자 배출 최우수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특히 올해 전체 합격자 대비 여성 합격자 비율이 36.1%로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모교 합격자

수는 증가해 더욱 의미가 있다. 합격 부문도 다양하여 일반행정 전국 및 지방은 물론 교육행정, 재경, 국제통상 등 다양한 직렬에서 합격자가 나왔고 소속 전공도 인문, 사회, 자연, 사범 등으로 다양했다.

재학 중 교육행정직에 수석 합격한 조예림 재학생은 “작년에 3차 면접에서 고배를 마셔 올해 합격하기만을 바랐는데 수석의 영예까지 안게 되어 감사하고 올해 코로나19로 시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학업계획 수립과 체력 안배가 쉽지 않았지만 가족과 지인의 응원과 도움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학교 인재개발원에서 국가고시반 지원과 여름방학 시험 특강 및 모의

고사 제공, 고시준비반 지도위원회 교수님들의 특강 지원 등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격 소감을 말했다.

기업에 근무하다 학교로 돌아와 국가고시반에서 새로운 도전을 펼친 최민지(영문 16) 동창은 “일반 회사 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저와 같은 졸업생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숙사와 고시반 생활을 지원해 준 학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창의적인 공무원이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2020년 11월 29일(일)에는 황선빈(정외 17) 동창이 ‘2020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일반외교 직렬에 합격한 황선빈 동창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수험 생활을 마치며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이 과정에 이화라는 맑바탕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는 1,166명이 응시해 1차 공직적격성평가(선택형), 2차 전공평가(논문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47명이 최종합격했다. 최종 합격자는 외교관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정규과정(약 11개월)을 수료한 후 신입 5급 사무관으로 임명된다.

인재개발원(원장 최정아)

은 국가고시준비반, 공기업

EDU, ROTC준비반 등 다양

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

화인의 공공분야 진출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

히 올해 3월에는 행정학·행정법·정치외교학 등 핵심 과목의 우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국가고시준비반 지도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고시준비반을 전방위로 지원해 왔다.

고시 합격자 배출에서 국내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모교는 2013년도 외무고시 최연소 합격자 배출, 2015년도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및 행정고시 교육행정직 수석합격자 배출, 2016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3명 배출, 2016년도 행정고시 재경직렬 수석 배출 등 국가고시 여풍을 주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강주희(철학 21), 고준영(경제 15학번), 김근령(국문 21), 박서아(커미부 10), 박우정(경제 15학번), 봉지은(교육 21), 신새리(행정 21), 이가영(통계 20), 정혜원(수학 18), 조예림(사회과교육과 14학번), 최나슬(사학 21), 최민지(영문 16), 황지선(영문 12학번)



조예림 재학생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기금 모금’ 동창들의 후원 열풍

지난 1월 25일(월) 노후화된 학관의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대외협력처

(처장 최유미)가 진행 중인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기금 모금’ 캠페인에 이화인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재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기부 소식이 퍼지면서 재학생을 포함한 20~30대의 적극적인 기부가 두드러졌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1억 2,000여 만 원(2021년 2월 22일 기준)이 모금되었으며, 참여 인원 438명 중 35세 이하 동창의 참여가 75%에 달한다. 특히, 새로 단장될 학관 후원자 기념판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예우 기준인 300만 원 이상 후원자가 전체 후원자의 75% 가까이 된다.

이러한 기부 열풍에 대해 최유미 전 대외협력처장은 “첫째는 학교를 위하는 이화인들의 애교심 및 자부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외협력처가 2020년에 진행한 ‘코로나19 극복 긴급모금’과 ‘선배라면장학금10주년 프로젝트’에도 동창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던 점 등을 들며 “우리 학교의 설립 자체가 후원으로 시작된 터라, 애초에 이화인의 DNA에는 나눔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관은 필수교양과목을 비롯한 다양한 강의가 많이 진행되고 교내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좋아 이화인 모두에게 추억이 많은 건물이기에 전 연령대의 동창들이 출신 학과를 가리지 않고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업 준비모임의 인연을 이어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단체기부도 이어졌다. 최유리(기독 18) 동창은 “2017년 여름, 6명이 모여 취업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그해 겨울 모두 취업이 되었다”며 “함께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취업하면 학교에 꼭 받은 것을 돌려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약속을 했는데, 여섯 명 모두 학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어서 이번 기금 모금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동창회 기수별로 후원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 사학과의 경우 모금 캠페인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60~70대 동창을 중심으로 이미 6개 기수가 후원을 약정했다.

중문과에 재학 중인 자녀 정민주(17학번) 재학



생을 위해 기금 모금에 참여한 정희철 씨는 “학관은 학교를 다니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건물일 만큼 딸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장소”라며 “이화에서 그리고 완공될 학관에서 값진 시간을 보낸 모든 학생들이 우리 사회를 선도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인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후원을 약속하게 됐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광복과 한국전쟁의 역사적 격랑기를 거치며 한국 대표 종합대학으로 급성장한 모교가 학생들의 교육 공간 확충을 위해 1964년 준공한 학관은 연건평 4,355평,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당시 교내에서 가장 큰 건물로, 지난 50여 년간 대표적인 강의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

모교는 학관 완공 57주년을 맞아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을 통해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미래 교육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예정이다. 이번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 공사는 리모델링 영역(1만 795.44m²)과 재건축 영역(6,838.24m²)으로 나누어 2022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모교는 공사 종료 시점인 2022년까지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기금’ 모금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다. 학관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 공사와 기금 모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giving.ewha.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계재

인문과학대학

회장__ 이정화(독문 74)

학관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 기공식

1월 25일(월) 오후 2시, 모교 학관 앞 광장에서 '학관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학관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 확충을 위해 1960년 신축에 착수, 1964년에 준공된 건물이다. 학관은 초창기엔 교실이 많은 건물이라는 뜻에서 Classroom의 앞자를 딴 'C관'으로 불렸으며, 대형 강의 수업과 교양 수업으로 인문대뿐만 아니라 타 대학 동창들에게도 추억이 많이 담긴 건물이다.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 공사는 2월 착공하여 2022년 7월 완공 예정(약 17개월)이다. 리모델링 영역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기존 공간을 기능적으로 개선하여 강의실, 세미나실 등 좀 더 스마트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재건축 영역은 지하 1층, 지하 7층까지 증축하

여 다목적홀, 첨단 강의실, 복합문화 라운지, 학생 편의시설 확충, 승강기 및 외부 연결 브리지 설치, 냉난방 시스템 및 단열 보강 등이다. 모교 대외협력처에서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기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인문대 동창회뿐만 아니라 학관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동창들의 힘을 모으고 있다. 현재 타 대학 출신 젊은 동창들의 참여가 높고, 해외에서도 기금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모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이나 학관 건축기금으로 들어가서 후원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후원 금액에 따라 후원자 기념판에 개인 이름 또는 학과명, 기명이 등재되는 등 예우가 마련되어 있다. 이 기공식에는 남상택 총동창회장과 이정화 인문대 동창회장이 참석했다.

조형예술대학

회장__ 신영선(장미 88)

『녹미회 소식』 발간과 홈페이지 개설

조형예술대학 동창회(녹미회)는 2월 22일(월) 『녹미회 소식』을 발간한 데 이어 2월 26일(금) 녹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녹미회 소식』은 2003년 창간호를 낸 뒤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이 열한 번째이다. 『녹미회 소식』은 2019년부터 2020년의 녹미회 소식을 비롯하여 조형예



1월 25일(월) 개최된 학관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 기공식

술대학, 선교부 및 8개 학과의 2년간의 활동 소식을 담았다. 각 학과는 동창들의 전시, 수상 소식 및 근황과 각 전공과의 동창회 활동을 소개하였다. 이 소식지를 통해 소식을 공유함으로써 회원들 간의 결속을 다지고 대내외적으로 녹미회를 홍보하고 있다.

한편 이화의 조형예술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한 수많은 동창들이 국내외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에 녹미회에서는 동창들을 하나로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동창들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녹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http://ewhanokmi.co.kr>).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간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이고 해외에 체류 중인 녹미회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형예술대학과 함께 녹미회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동창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녹미회의 확장과 발전을 꾀하고 있다.



조형예술대학에서 발간한 『녹미회 소식』

후원금 500만 원을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격려금으로 전달하였고, 송년바자 후원금 200만 원은 로제타선교센터 후원금으로 전달하였다. 로제타선교센터 후원금 전달식은 1월 11일(월) 오후 5시에 이대서울병원 7층 회의실에서 열려 심현 회장과 피상순(의학 84) 총무가 참석하였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 이대서울병원 지하2층 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린 본과 4학년 후원금 전달식에는 심현 회장, 피상순 총무, 심기남(의학 92) 이사, 박영미(의학 96) 이사가 참석하였다. 참여한 동창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격려와 응원이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본과 4학년 후배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의과대학 동창회

의과대학

회장 __ 심 현(의학 80)

후배 격려금, 로제타선교센터 후원금 전달

2020년 송년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동맹 휴학과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본과 4학년 후배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였다. 동창들이 정성껏 모은

약학대학

회장 __ 김용재(약학 82)

비대면으로 신입 동창 환영회 개최

올해 신입 동창 환영회는 비대면 행사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영상 자료 준비를 위해 2월 18일(목) 약학관 204호에서 신입 동창 대표 4명과 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 동창 대표의 입회 선서, 동창회장 환영사, 축하 꽃다발과 선물 증정, 기념사진 촬영의 순서를 가졌다. 또한 동창회에서는 동창회 소개 자료와 후배들에게 전하는 선

배들의 이야기 등을 준비하였고, 신입 동창들이 편집하여 신입 동창을 포함한 동창 모두에게 2월 22일(월)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온라인 신입 동창 환영회를 준비하며 신입 동창들과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졌고 따뜻한 선후배의 만남을 확장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약학대학 홈페이지가 모바일 홈페이지로 확대되었다. 신입 동창의 회원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동창회원의 소식을 신속하게 알리는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

약학대학 동창회 사업부에서는 매년 사회봉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까지 계속되었던 정원 요양원 후원사업을 종결하고, 올해 새로운 후원기관으로 '2020년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사지숙(교육 55) 동창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안양의 집'을 선정했다. 2월 25일(목) 김용재 동창회장, 박병희(약학 84) 총무, 허은경(제약 87) 사업부장, 권희준(약학 90) 사업부 차장이 함께 방문하여 약대 동창회의 후원금과 총동창회 후원선물인 떡

과 과일을 전달하였다. '안양의 집'은 70여 명의 청소년들이 그룹홈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데 재능 기부를 한 음악가의 도움으로 많은 원생들이 관악기를 연주한다. 기회가 된다면 약대 동창회 행사에 찬조 출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이 대 기악과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실습비, 중학생 2명의 신학기 준비금으로 사용되며 앞으로도 후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창회의 선물을 잘 전달하여 뿌듯하였고 함께 나눔에 동참한 동창들에게 감사한다.



비대면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개최한 약학대학 동창회

과(학부) 순서로 계재

과(학부) 소식

사회학과

회장 __ 신혜령(75)

이화발전기금 펀드레이징

사회학과 출신 김은미(사회 81) 교수가 제17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사회학과 동창회는 사회학과 출신의 첫 총장 당선을 축하고 성원하는 마음에서 모교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자 이화발전기금 펀드레이징을 시작했다. 임원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선후배들의 적극적인 협

력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좋은 결과가 기대되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총장 취임 축하연과 기금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공학과

회장__김명주(17)

'제4회 식품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식품공학과 동창회는 2020년 11월 7일(토) '2020 제4회 식품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다. 식품공학과 동창회는 매년 11월 식품공학과 동창들이 함께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해왔다. 2020년도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신공학관에서 진행했다. 2020년도 식품공학과 동창회 주요 추진 사업인 식품공학과 동창회 법인 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직인 발급 및 동창회 통장 개설에 대한 내용 전달이 진행되었다. 이후 진행된 경품 추첨 순서에는 공과대학 동창회로부터 지원받은 공대 소모임 지원금으로 선물 증정식을 진행하였다. 이어 식품공학전공 교수진의 식품공학과 동창회 발전 기금을 김병식 교수가 대표로 전달해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교류가 어려워진 동창회



정기 총회를 개최한 식품공학과 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내년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국음악과

회장__한나라(92)

음악대학에 거울 기증

2020년도 한국음악과 동창회 임원 일동(한나라 회장, 신주희(97) 부회장, 기숙희(01) 부회장, 김희정(03) 총무)이 뜻을 모아 음악대학 강영근 학장님과 상의하여 거울을 기증, 음악대학 벽면에 설치하였다. 기증한 거울은 지하 1층 시청각실 앞, 지하 1층에서 1층 사이, 1층과 2층 사이, 2층과 3층 사이에 각각 설치하였다.



거울을 기증한 한국음악과 동창회

서양화과

회장__조은정(85)

이서회의 새 임원진 꾸려

2021년 이서회를 이끌어 갈 새 임원진이 드디어 꾸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총회는 차후에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서회 회원들에게 임원진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 임원진을 선출한 서양화과 동창회

신임 회장 조은정(85) 동창, 부회장 현경원(85)·박혜성(86) 동창, 총무 박효실(90)·최문선(92) 동창, 회계 남묘진(98) 동창, 서기 박가나(89) 동창 모두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출중한 인재이다. 앞으로 이서회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더욱 도모하고 대외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리라 기대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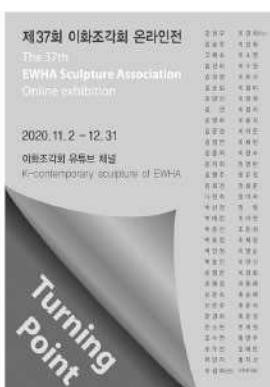
조소과

회장 __ 박신정(85)

제37회 이화조각회 정기전

조소과는 제37회 이화조각회 정기전 'Turning Point'를 2020년 11월 2일(월)부터 12월 31일(목)

까지 온라인 전시로 개최하였다. 이정자(66)·이종희(71) 동창 등 대선배 작가부터 이수원(12)·박정향(15) 동창 등 신진작가까지 총 64 명의 회원들이 전시에 참여하였다. 이화조각회의 유튜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개최한 조소과

채널 'K-contemporary sculpture of EWHA'에서 동창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계속 감상할 수 있다.

섬유예술과

회장 __ 전영선(88)

인수인계를 위한 신·구 임원 만남

2월 25일(목) 오후 6시 사당동 생어거스틴에서 2020년 섬유예술과 결산 보고 및 활동과 회계 감사, 신임 임원 인준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 맞춰서 박희전(90) 전 회장, 봉지희(85) 감사(역대 회장), 신임 전영선 회장, 신임 이상영(94) 부회장 겸 회계가 만남을 가졌다.

전임 임원들이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화와 섬유예술과를 위해 열정적으로 동창회에 봉사한 수고에 감사하고, 임원들 간의 역할 및 인수인계를 하였다.

신임 임원으로는 회장에 전영선 동창, 부회장 겸 회계 이상영 동창, 총무 이해나(96)·최유리(96) 동창, 홍보 현재희(96) 동창, 서기 장해림(02) 동창, 선교부장 김은영(92) 동창이 임명되었다.

앞으로 신임 임원들이 이화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유예술과 발전에 기여하는 동창 선후배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임 임원 인준을 위해 모인 봉지희·박희전·전영선·이상영 동창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제재

멜버른 지회

회장_신은미(사회 99)

연말 모임 갖고 이야기 나눠

2020년 12월 5일(토) 박혜진(독문 97) 동창의 집에서 2020년 연말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진 공식 모임이다.

동창들은 각자 그간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였는데, 특히 고국에 있는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모두들 숙연해지는 분위기였다. 동창들은 모두들 입을 모아 팬데믹의 종료를 기원하였다.

이날의 모임은 고경자(동양 63) 동창이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며 적극적으로 모임을 격려해 준 덕에 만들어진 자리였다. 비록 고 동창은 참석하지 못 하였지만 후배들을 위해 마음 써주는 선배에 대해 모두들 감사하였다.



박혜진 동창의 집에서 모임을 가진 멜버른 지회 동창들

또한 한국에서 교환연구원으로 멜버른을 방문 중인 이현정(의학 03) 동창이 처음 참석하여 모두들 반갑게 맞아 주었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_이영완(정외 81)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영상 모임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모임이 불가능한 가운데, 2020년 12월 5일(토)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모임을 줌(Zoom) 화상으로 열어, 28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예년에는 지회 동창들이 파티복으로 치장하고 호텔의 Banquet Room을 빌려서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오락을 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번에는 성탄을 축하하는 복장을 한 동창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줌을 통해 참석하여 크리스마스



줌을 통해 연말 모임을 갖고 성탄을 축하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캐롤을 함께 부르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제 줌을 통한 만남도 익숙해지고 있지만, 속히 대면으로 만나서 함께할 수 있기를 회원 모두 기도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화는 중단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다.



줌을 통해 연말 총회를 치른 시애틀 지회 동창들

시애틀 지회

회장 __ 박명호(정외 78)

연말 총회 열고 재임하는 회장단 소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마음과 달리 이번 시애틀의 겨울은 유난히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 시애틀 지회에서는 2020년 2월 이후부터 대면 모임을 못하고, 대신 80여 명의 동창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수시로 동창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유래 없이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지회의 모든 동창들이 건강하여 감사한 마음이다.

2020년 12월 13일(일)에 줌(Zoom)으로 연말 총회를 열었다. 박정혜(체육 71) 동창의 교가 선창으로 시작한 1부에서는 재임하는 회장단과 임원진의 소개, 이사회 결의사항 보고, 각 부서(합창반) 활동 및 재정보고에 이어 공지사항을 전달하였으며, 2부에서는 성탄 복장으로 참석한 동창들 중에서 베스트 드레서 3명을 뽑고, 게임을 통해 2명을 뽑아 작은 상품을 전달했다. 이어서 김성아(종음 99) 동창의 피아노 연주, 합창반의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로 모임을 마감했다.

연례 사업으로 이화국제재단 후원, 워싱턴대학 한국학 후원, 한인사회 불우이웃돕기 기금 모금에 참여하여 후원했으며, University of Washington에

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 Elaine Kim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예자(커미부 60입) 동창이 출신에 상관없이 편부모인 학생들의 어려운 학업 생활을 돋기 위하여 18년간 미화 37만여 달러(한화 4억여 원)를 장학금으로 수여했다는 아름다운 소식도 전한다. 이화 동창 모두가 2021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맞길 기원한다.

워싱턴DC 지회

회장 __ 서혜경(정외 90)

온라인을 통한 정기적인 클럽 활동

워싱턴DC 지회는 2020년 12월 12일(토) 온라인 총회 및 연말 파티를 개최하였다. 1부 총회에서 동창회 및 이사회의 회계보고와 2020년 지회 활동보고를 하였으며, 2021년 지회장으로 현 회장인 서혜경 동창의 연임이 인준되었다.

2부 연말 파티에서는 이상명(커미부 02) 문화부장의 진행으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고, 팀 게임으로 팀워크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파티는 1957년 졸업 동창부터 2014년 졸업 동창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동창들과 한국,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원거리에 머물



2020년 워싱턴DC 지회 온라인 총회 및 연말 파티

고 있는 동창들도 참여하였다.

2021년은 2월 25일(목) 영화 클럽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누며 영화를 통해 삶을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워싱턴DC 지회에서는 대면 모임이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을 통한 정기적인 클럽 활동 및 특강 등을 통해 동창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리블랜드 지회

회장__문성애(생미 81)

영상으로 만나는 아쉬운 월례 모임

2020년 12월 19일(토)에는 여섯 명의 동창들이 영상으로 모여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기획했다. 특히 캐나다에서 이사 온 신성이(컴공 93) 동



2021년 첫 모임에서 영상으로 대화하는 클리블랜드 지회 동창들

창이 처음으로 참석해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다. 젊은 동창이 우리 지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믿는다.

2021년에는 일하는 동창들을 위해서 마지막 수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오후 5시에 번갈아 가면서 영상으로 만날 계획을 하고 있다. 2020 회계 보고 자료는 12월 21일(월)에 이메일로 지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2021년 1월 27일(수)에 2021년 첫번째 이화 만남이 이루어졌다. 모처럼 플로리다에 있는 두 동창이 참여하여 총 여덟 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학창 시절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거리 두기 생활을 하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모임에서 오간 유익한 내용은 채팅 그룹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1월 30일(토)에는 다섯 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 비법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는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

토론토 지회

회장__윤미경(사복 93)

횃불회 예배로 따스한 온라인 만남

팬데믹으로 많은 활동들이 정지 혹은 제약되면서 움츠러들었지만, 토론토 지회는 횃불회와 다양한 동호회 모임들로 따스한 온라인 만남들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첫 공식 행사를 2월 19일(금) 저녁 7시에 동창들이 횃불회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정준(가정 65) 동창이 새 임원진들



햇불회 예배 모임을 가진 토론토 지회 동창들

을 축복해 주며, 이화인들이 참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성스러운 부담을 가진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길 기도해 주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종결시켜서 이로 기인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희망의 세계를 만들 수 있게 도와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홍현정(피아노 82) 동창은 모녀지간의 화기애애하고 아름다운 가족 특송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봄날처럼 따뜻한 감동으로 물들여 주었다.

최경자(영문 63) 목사의 설교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고난을 기억하고 기리는 사순절에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선을 행하는 크리스천들의 삶이 되라는 말씀을 하였다.

최 목사는 흙으로 만들어진 똑배기와 도자기를 보여 주며, 흙으로 만든 인간이 이런 물건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입김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숨결과 생명의 기운을 항상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2부 순서에서는 김성희(제약 84) 동창이 '약과 영양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약과 영양제

의 차이점, 약 복용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 등에 대해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토론토 지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주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동창들의 건강과 친목 도모를 위해 다양한 동호회 모임들을 비대면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노래를 사랑하는 모임인 화음동호회, 목관 악기(클라리넷, 플루트, 리코더)를 연주하는 화관(花管) 동호회, 토요 걷기 동호회, 하이킹 동호회, '이화 짱! 몸 짱! 에어로빅 동호회 등 웹 관리 이진희(대학원 07) 동창이 준비한 재미 있는 동호회 소개 영상을 감상하며 동창들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힘들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동창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기에, 스크린 속에 보이는 동창들에게 무한한 사랑의 하트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행복한 햇불회 모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파리 지회

회장 __윤애영(서양 88)

색다른 송년과 신년을 맞는 동창회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첫째주 토요일의 재불이화총회 및 송년모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식당이 문을 닫고 6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프랑스 정부 방침으로 인해 취소가 불가피했다.

평소에는 송년 모임에서 동창들의 소식과 안부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새해 이화 달력과 수첩을 함께 나누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취하였다. 연세 든 선배들에게는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방문하며 마스크와 이화 달력, 수첩을 전달해 드리며 안



이화 달력과 동창 수첩을 전달받은 파리 지회 동창들

부와 소식을 전하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동창들에게는 전화 통화로 안부를 서로 나눈 후 달력과 수첩을 우편으로 배송하였고, 파리 인근의 동창들은 6인 이상 모임 금지의 규칙을 준수하며 윤애영 회장의 집에 소규모로 방문하며 담소를 나누고 달력과 수첩을 전달받았다.

아쉽지만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창들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많은 동창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파리 지회 임원들은 화상 회의를 통해 현 상황에 맞는 활동 계획에 대해 토의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채비를 하였다. 그 시작으로 2021년 3월 5일(금) 줌(Zoom)을 이용하여 재불이화총회를 개최하였다.

호치민 지회

회장__ 원귀정(영문 89)

첫 호치민 이화인의 밤 치러

1월 14일(목) 호치민 1군 뉴월드 호텔에서 첫 호치민 이화인의 밤이 치러졌다.

호치민에 거주하고 있는 이화 동창 17명이 함께 한 가운데, 2020년 서로의 근황과 2021년 새해에 소망하는 점들을 이야기 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특별히 강정옥(융합보건 67) 동창에게 새

해 말씀을 들었으며, 회장·고문과 함께 호치민 이화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건배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호치민 지회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모교 김해숙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 대외협력처장 그리고 베이징 지회 회장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시청하였다. 호치민 지회가 많은 분들의 관심에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화인으로서의 궁지를 느낄 수 있었다.

식사 시간을 마치고 이성주(성악 90) 동창과 신주민(한음 01) 동창의 신년 축하 공연이 행사장 안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아름다운 노래와 한국 전통의 해금 연주가 조화롭게 녹아 들어 신년회 분위기에 큰 감동을 더해주었다.

즐거운 경품 시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선물을 받아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오랜만에 받아보는 학교 달력과 동창 수첩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또한 원귀정 회장이 모두에게 이화 손수건을 깜짝 선물로 준비해 주어 즐거움은 더욱 배가 되었다.

대선배들과 이화를 졸업한 지 얼마 안되는 후배 동창들까지 몇 세대가 어우러진 호치민 동창회가 2021년에 호치민 지역 사회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호치민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호치민 지회 동창들

육완순(체육 56) 동창

한국 모던댄스의 선구자 육완순 동창이 『육완순의 편지 내가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던가』를 출간하였다. 지난 60여 년간 인연을 맺은 117명의 무용가들과 나눈 편지 형식의 수상록이다. 육완순 동창은 모교 무용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 육완순무용원 대표이다.



육완순 동창

정연희(국문 58) 동창

소설가 정연희 동창이 단편 소설 다섯 편을 묶은 소설집 『땅끝의 달』을 폴냈다. 올해로 등단 64주년을 맞이한 정 동창은 장편 소설 30여 권과 소설집 10여 권을 출간하였다. 현재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연희 동창

이정자(기독 66) 동창

문학박사이자 시조시인인 이정자 동창이 제1회 일두시조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일두시조문학상은 일두기념사업회와 한국시조문화진흥회가 일두정여창 선생의 도학사상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이정자 동창

박일순(조소 74) 동창

2020년 12월 11일(금)부터 2021년 2월 21일(일)까

지 김종영미술관에서 '제15회 김

종영미술상 수상 기념전-박일순'을 열었다. 이번 수상 기념전에서 박일순 동창은 미발표 최

근작을 중심으로 평면 작품과 조각 30점을 선보였다. 박 동창



박일순 동창

은 모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후학 지도에 계속 힘을 쏟고 있다.

유명숙(경영 74) 동창

유명숙 동창이 2020년 9월에 토론토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자선단체인 '아리랑 시니어 센터(Arirang Age-Friendly Community Centre)'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유 동창은 토론토에 있는 유일한 한인 양로원(무궁화 양로원)이 자금난으로 인해 다른 회사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유명숙 동창

이미연(동양 76) 동창

2월 4일(목)부터 17일(수)까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아트 스페이스 웰리아에서 초대 개인전 'The Spiritual Journey'를 열었다. 이미연 동창은 이번 전시에서 다채로운 기법으로 복잡한 사유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이미연 동창

장영란(섬예 77) 동창

수원대학교 공예디자인과를 정년 퇴직한 장영란

동창은 1월 16일(토)에 개최된 제 11회 로잔느 국제섬유비엔날레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 장 동창은 세계적인 작가들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특별 온라인 전시회에도 참여하였다.



장영란 동창

황은미(국제사무 77) 동창

커리어컨설턴트협회장 황은미 동창이 2월 22일(월) 정부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는 위원회로, 기업·학교·정부 등 사회구성 주체와 민간 전문가가 청년 실업 해소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황은미 동창

이은숙(섬예 79) 동창

이은숙 동창이 2월 1일(월)부터 21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위치한 토포하우스에서 초대전 ‘야광/실/치유’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팬데믹의 고통과 아픔을 예술로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토포하우스가 주최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 동창은 블랙 라이트와 야광실에 치유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은숙 동창

한명옥(무용 79) 동창

한국무용가 한명옥 동창이 2020년 12월 9일(수) 서울의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드림무용단의 공연 <소금산>에서 총괄 연출을 맡았다. 이 공연은 서울시의 ‘공연



한명옥 동창

업 회생 프로젝트(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계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한명옥 동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무용과 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정혜원(의학 84) 동창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혜원 동창이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제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2008년 창립한 이래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최초의 여성 회장이다. 정 동창은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창립준비 위원으로 시작해 12년간 활발한 학회 활동을 통해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정혜원 동창

조기숙(무용 85) 동창

모교 무용과 교수로 재직 중인 조기숙 동창이 단장으로 있는 조기숙뉴발레단이 3월 14일(일) 서울 강남구 소재 M극장에서 <아(我)>를 공연하였다. 홍세희 안무가의 작품 <아(我)>는 VFX아티스트 김성동 씨가 참여해 한국 최초로 멀티미디어 ‘Azure Kinect Sensor’ 와 VFX(Visual Effects)를 활용한 작품이다.



조기숙 동창

원숙연(행정 86) 동창

모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원숙연 동창이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 7개 관계사의 이사회를 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원숙연 동창은 행정·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전문가로서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



원숙연 동창

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기재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고, 현재는 대법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금란(과교 86) 동창

김금란 동창이 1월 11일(월) 제25대 광주지방기상청장에 취임했다. 김 동창은 1988년 기상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위성기획과장, 창조행정담당관,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금란 동창

남연숙(도예 86) 동창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년마다 주최하는 'Creative by Pacific Artists' 아트전을 팝 대학 이슬라 갤러리에서 가졌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남연숙 동창

박혜경(사회과교육 86) 동창

박혜경 동창이 3월 8일(월) 충북 여성재단 제3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박 동창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 일리노이대학 연구원,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인천 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장 등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여성 분야 전문가이다.



박혜경 동창

박혜성(서양 86) 동창

2월 24일(수)부터 3월 2일(화)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마루아트센터에서 초대전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박혜성 동창

강혜영(약학 87) 동창

강혜영 동창이 2월 1일(월)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강 동창은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에 2011년부터 재직하면서 약학대학 부학장, 약학과 학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2년이다.



강혜영 동창

김태연·박경혜·박향숙·오윤선·유운경·윤혜정·이인숙·이주현·임현미(섬예 87) 동창

1월 18일(월)에서 2월 7일(일)까지 정동아트센터에서 '실로 물들다' 자수전을 열었다. 모교 섬유예술과 87년 졸업 동기들의 두 번째 그룹전이다. 이 전시는 자연을 주제로 빛을 머금었다가 뿐 어내는 실크사만의 독특한 특징을 이용해 자수가 조형 예술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 특징이다.



박향숙 동창

박선희(장미 88) 동창

모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박선희 동창이 (사)한국 패션일러스트레이션협회 제13대 회장에 선임됐다. 박 동창은 2022년 2월까지의 임기 동안, 정기전 및 패션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등 협회 주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협회는 국내 패션 관련 대학교수 및 강사,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1995년에 창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사단법인이다.



박선희 동창

최지연(무용 88) 동창

한국무용가 최지연 동창이 이끄는 최지연무브먼

트는 1월 9일(토)부터 10일(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신작 <플라스틱 버드>(안무: 최지연)를 공연했다. 이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창작 지원 주력 사업인 '2020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되는 자연 현실과 인간에 대한 경고, 희망을 꿈꾸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지연 동창

오지은(화학 89) 동창

오지은 동창이 2020년 12월 21일(월) 포스코의 2021년 정기임원 인사를 통해 포스코 기술연구원 상무급 연구위원으로 승진하였다. 오 동창은 광양제철소 도금부장, 기술전략실 압연기술그룹장, 압연생산기술그룹장을 역임했다.



오지은 동창

최경은(화학 89) 동창

2월 1일(월) 동아쏘시오그룹의 임원인사에서 최경은 동창이 DMbio 부사장에 선임되었다.



최경은 동창

이재경(국제사무 90) 동창

전 삼성증권 전무 이재경 동창이 2월 1일(월)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본부장(전무)에 선임되었다. 프리미어블루본부는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이재경 동창은 삼성증권에서 SNI SNI본부장, 삼성타운금융센터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경 동창

탁정미(물리 90) 동창

탁정미 동창이 효성그룹 2021년 정기 임원 인사

에서 효성중공업 IT 혁신담당 전무로 승진했다. 탁정미 동창은 효성ITX 스마트 팩토리 사업 담당자로, 제조업에 적합한 스마트 팩토리 로드맵을 설계하는 등 IT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탁정미 동창

이화채색연구회(동양 90)

동양화과 90년 졸업 동기들로 구성된 단체인 이화채색연구회(회장: 박연옥)의 초대전이 2월 16일(화)부터 22일(월)까지 일백헌갤러리에서 열렸다. 이화채색연구회는 민화를 바탕으로 전통 채색화를 연구하며 꾸준히 그룹전과 초대전을 통해 동기 간의 끈끈한 교류와 열정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화채색연구회

김지혜(도예 91) 동창

모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김지혜 동창이 2020년 12월 31일(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동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예매개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2019년~2020년 신규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정착시키며 공예문화와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지혜 동창

김미경(조소 92) 동창

1월 30일(토)부터 2월 21일(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소재 스페인스 자모에서 개인전 '심처의 비너스'를 가졌다.



김미경 동창

문유선(서양 94) 동창

1월 13일(수)부터 26일(화)까지 갤러리 토포하우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문유선 동창

남묘진(서양 98) 동창

2020년 12월 2일(수)부터 12월 7일(월)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 'Journey of Life'를 열었다.



남묘진 동창

윤미연(도로시 엠 윤, 조소 99) 동창

1월 21일(목)부터 27일(수)까지 서울시 강남구 소재 ADM갤러리에서 '44개 색동 요술봉과 색동 아우라' 개인전을 열었다. 2020년 아트앤테크 활성화 창작지원 사업 선정작으로 인터랙티브 AR과 3D 모션캡쳐를 더하여 새로운 전시와 공연의 형태를 보여 주었다.



윤미연 동창

민보영(동양 00) 동창

2020년 12월 16일(수)부터 21일(월)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 'Never Falling Trees' 을 열었다. 마음에 투영된 나무의 이미지 위에 작가의 감정과 생각을 엿어, 때로는 차분한 단색과 선적인 요소로 때로는 화려한 색채의 어지러운 필치와 속도감으로 혼돈과 질서의 반복적 성찰을



민보영 동창

그려내었다.

차경화(조소 00) 동창

200년 12월 1일(화)부터 19일(토)까지 서울시 강남구 소재 갤러리 이주에서 '나무: 꿈을 꾸다' 개인전을 열었다.



차경화 동창

윤순영(의학 01) 동창

윤순영 동창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장에 선임되었다. 윤 동창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직무대행), 응급의료정책기획팀장, 응급의료교육홍보팀장을 역임하였다.



윤순영 동창

신지혜(섬예 02) 동창

신지혜 동창이 2월 24일(수)부터 3월 1일(월)까지 인사동 KCDF 갤러리, 2층 3전시실에서 '감성 위빙과 니팅'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신 동창은 정형화된 위빙과 니팅의 구조 속에서 비정형성을 추구함으로써 팬데믹으로 인해 고정된 생활 속에 개인의 혼란과 두려움을 드러냄으로 감정의 분출로를 모색하였다.



신지혜 동창

김주희(동양 03) 동창

김주희 동창이 2월 3일(수)부터 20일(토)까지 갤러리 자작나무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간결하고 동화 같은 형상과 소박한 소재들, 부드럽고 따스한 색감의 작품들 일상의 행복, 평범한 삶의 평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다.



김주희 동창

김혜림(장미 04) 동창

2020년 12월 12일(토)부터 20일(일)까지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飛비 Ascending**’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조선시대 겉옷 포에서 영감 받아 흑백의 오묘한 조화와 선의 다층적 교차를 통해 전통의 고전미와 현대의 세련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전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혜림 동창

정유미(동양 05) 동창

1월 13일(수)부터 2월 2일(화)까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아트비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영국 유학파인 정유미 동창은 한국화의 소재와 기법을 확장하여 캔버스에 아크릴의 강렬한 색감과 봉황적 조형을 구사하며 잠재의식의 내면을 깨우는 듯한 작품을 선보였다.



정유미 동창

송은미(의학 06) 동창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송은미 동창이 최근 개최된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자상을 받았다. 송 동창은 정성애(의학 91)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함께 연구한 「3D 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기능이 강화된 편도유래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란 제목의 논문으로 이번 상을 수상했다. 한편, 매년 개최 국가를 선정해 열리는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 학술대회는 올해 한국이 주최국이었지만 코

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행사로 대체하여 열렸으며, 36개국 1,540명이 대회에 참여했다.

이동심(경영 06) 동창

2020년 10월 12일(월) 태원세무 회계법인의 공동대표로 선임되었다. 2007년 태원세무회계법인에 입사한 이동심 동창은 지난 5년간 수석세무사로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동창은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심 동창

이아린(경제 06) 동창

이아린 동창이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았다. 이 동창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해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진은총(특교 15) 동창

진은총 동창이 ‘2020 장애인정책 청년 모니터링단’에서의 성실하고 우수한 활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진은총 동창은 특수교육에서의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 구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교육감 표창을 수상하였다.



진은총 동창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동창 여러분 중 주소가 변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동창이 펴낸 책



분단시대의 사회학

이이효재(문과 45입)

이이효재 지음/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지난해 타계한 고 이이효재 동창이 1985년에 펴낸 책이 출간 36년 만에 후배 학자들의 손을 거쳐 복간됐다. 이이효재 동창은 이 땅에 여성학을 처음 정착시키고 한국 여성운동의 길을 개척한 선구적 사회학자이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남북 분단'을 지목하고, 분단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사회적 삶의 여러 분야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특히 분단이라는 조건이 여성의 삶을 이중, 삼중으로 얹압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였다. 이이효재 동창은 "여성들은 여전히 다양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분단 상황을 종식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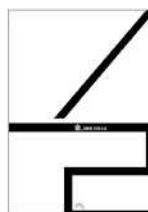


숨

서용좌(독문 67)

서용좌 지음 / 문학들

서용좌 동창이 네 번째 장편소설 「숨」을 출간했다. 다른 사람들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 나남, 타인의 숨소리 이상의 무언가가 들리는 것은 분명 촉복만은 아닐 것이다. 나남은 우연히 만난 사람의 내밀한 소리를 들으며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는다. 서용좌 동창은 2004년 이화문학상, 2017년 제33회 PEN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남대 독문과 명예교수이다.



음식에서 삶을 짓다

윤연자(윤현희·국문 72)

윤현희 지음 / 행복우물

음식 사업을 하면서 인생을 배운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4개의 장으로 나누어 풀어낸 이야기 속에는 국문학도에서 음식 사업가로 변화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도전과 좌절, 성공과 실패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윤연자 동창은 출판사 편집자, 대기업 홍보실, 대학에서

일본어 강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 일본어 번역가 겸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로키산 마루에서

조용옥(국문 73)

조용옥 지음 / 바른북스

시인 조용옥 동창이 시집 「로키산 마루에서」를 펴냈다.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방인이라는 경계인의 삶 속에서 담아낸 시향이 색조 있게 펼쳐져 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 거주하고 있는 조용옥 동창은 미국 애틀랜타 여성문학회 《문학과 의식》으로 등단하였으며, 에드먼턴 얼음꽃 문학회가 주최한 신춘문예에 대상으로 당선된 바 있다.



울 언니가 결혼한대요!

김명희(국문 74)

김명희 글·그림/밝은미래

1970년대 대한민국 생활사를 통해 오늘날을 재조명해 보는 '1970 생활문화' 시리즈 일곱 번째 책 「울 언니가 결혼한대요!」가 출간되었다. 1970년

대 시대적 배경과 함께 결혼에 관한 정보도 알차게 들어 있다. 또한 김명희 동창은 「우리들의 광장」(김명희 글, 백대승 그림, 길벗어린이)도 펴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그림과 함께 담아낸 역사 그림책이다. 김명희 동창은 전 KBS 아나운서로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였다.



밥이 그리워졌다

김용희(국문 86)

김용희 지음 / 인물과사상사

이 책은 '이번 생에서 기억할 만한 음식' 50가지에 대해 쓴 음식 에세이이다. 칼국수, 삼겹살, 양푼비빔밥, 떡볶이, 냉면, 짜장면, 설렁탕, 콩국수 등 인생의 추억을 소환하는 음식들이 소개돼 있다. 김용희 동창은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 그 음식들이 함께 곁에 있어 주었다고 말한다. 음식은 단순히 우리 몸을 살찌우는 영양소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 무엇이라는 이야기이다. 김용희 동창은 평택대학교 공연영상콘텐츠학과 교수로, 학생들에게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가르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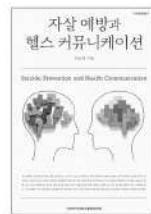


자살 예방과 헬스 커뮤니케이션

안순태(법학 90)

안순태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이 책은 자살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문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자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 전략과 미디어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서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살 예방 관련 서적들이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환자의 치료와 상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책은 자살 예방을 위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안순태 동창은 모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20년 자살예방인식개선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령, 80년 생각

김민희(국문 99)

김민희 지음 / 위즈덤하우스

5년간 100여 시간의 인터뷰 끝에 나온 이어령 탐구의 결정판. '우리 시대의 지성' 이자 '한국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그의 제자이자 인터뷰 매거진 『topclass』 편집장인 김민희 동창이 만나 80년 생각의 정수를 들었다. 김민희 동창은 학부 시절에 이어령 교수의 '한국인과 정보사회' '한국 문화의 뉴파러다임'을, 대학원에서는

그의 마지막 전공수업인 '기호학의 이해'를 들었다. 88올림픽 굴렁쇠 소년 기획, 새천년 즐문동이의 탄생, 디지로그와 생명자본주의의 제시 등 한국을 넘어 문명사의 굵직한 이정표를 세운 이어령 교수만의 창조력의 비결을 한 권으로 터득할 수 있다.



한국 베스트셀러 여성작가의 러브스토리 코드

진선영(대학원 05)

진선영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대중소설계의 베스트셀러 여성 작가 세 명의 창작방법론과 소설의 주제 의식을 심도 있게 살펴 보고 있는 연구서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1950년대 까지 남녀의 애정 문제를 주제로 한 대중소설을 통해 뛰어난 여성 심리 묘사와 선악의 대립 구도를 보여준 김말봉, 해방 전후부터 1960년대까지 흥미롭고 활달한 문체를 구사하며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진솔하게 다룬 장덕조, 그리고 1960년대 등단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사랑이 주는 슬픔과 고뇌를 잘 표현해 낸 박계형을 다루었다.

